

이제는 인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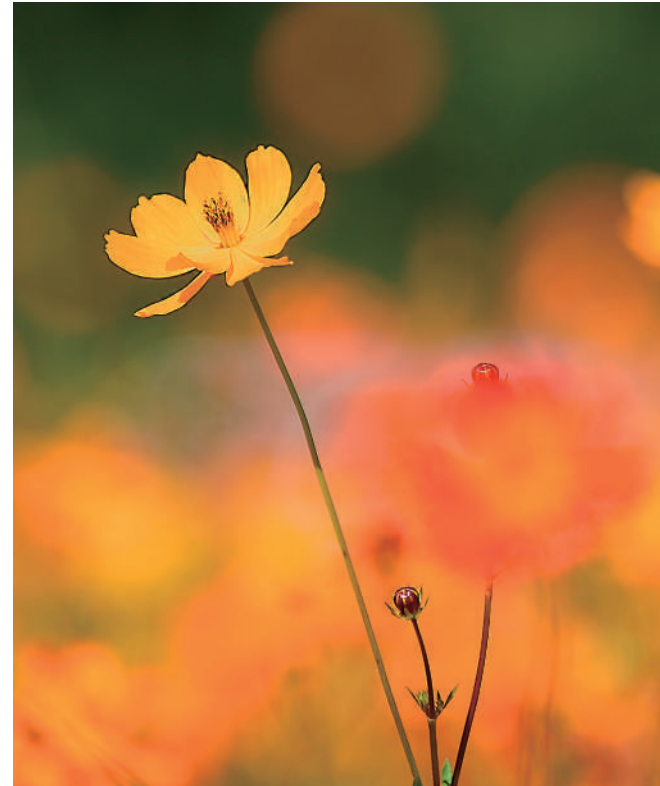
2025 APEC INCHEON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 디지털 혁신도시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6년 연속 수상

굿모닝 인천

2023 09 SEPTEMBER – vol.357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오면



어린 시절, 논현초등학교 가는 황톳길 가에 내 키보다 더 큰 코스모스가 사랑거리며 나를 반겨주었다. 꼭 걸어서 가야만 하는 먼 길을 코스모스가 반겨주지 않았다면 학교는 너무 재미없었을 것이다. 그 코스모스의 청순하고 고운 색은 어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그래서인지 코스모스는 내게 알 수 없는 애절한 그리움과 사랑이 스민 꽃이 되었다.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 오면 몸살이 나도록 코스모스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다. 내 마음속에 너무 깊이 자리 잡은 꽃이기 때문이다.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 활짝 핀 황톳길을 걸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리운 친구를 더욱 보고 싶게 하는 코스모스 활짝 핀 황톳길이 떠올라 벌써부터 가슴이 뒹다.

글·사진 최병관 사진가



표지 사진 인천에 내려앉은 가을
(계양산 코스모스, 인천대공원 단풍, 영종도 갈대)

발행인 유정복(인천광역시)
편집인 고주룡(대변인)
편집주간 유준호(공보담당관)
편집장 김진국
편집위원 정경숙·최은정
사진 안영우·홍승훈·류창현·임학현·유승현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시 공보담당관실 032-440-8306



9월은 ‘인천상륙작전 73주년’

오는 9월 15일은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일’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순식간에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을 국제적 행사로 격상시키려는 이유입니다. <굿모닝인천>이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월미도 등 3개 지점을 걸으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인천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래서 ‘더 인천’의 주제를 ‘바다’로 잡아보았습니다. 민선 8기의 핵심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역시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인천의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에선 인천의 갯대종을 소개합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인천은 저어새, 점박이물범 같은 희귀종의 천국입니다. 귀엽고 깜찍한 인천 갯대종을 만나십시오.
무덥고 끈끈했던 8월도 가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하늘거리고 잠자리 날아다니는 9월, <굿모닝인천>과 함께 풍성한 결실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CONTENTS

- | | |
|--|--|
| 04 인천 미소
가장 인천다운 〈굿모닝인천〉 外 | 45 이미지 뉴스
교통 편리한 인천 |
| 05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솔찬공원 | 46 의회 뉴스
청년이음 간담회 마련 外 |
| 06 골목길 TMI
⑮ 인천상륙작전 길 따라 걷기 | 48 인포 박스
2023년 청년 재정 UP 클래스 外 |
| 12 더 인천 : 살아가는 바다
⑨ 바다, 물고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 52 문화 캘린더
동상이몽 - '큐레이터의 선택 스펀오프展' 外 |
| 20 인천 오감 레시피
⑨ 장봉도 '백합탕' | 54 컬러링 인천
장수동 |
| 24 트렌드 인천 2023
⑨ 웰니스 로컬 관광 시대 | 56 내가 보는 세상
인천시민의 시선 |
| 28 인천 생태계, 세계를 지키다
⑧ 인천시 갯대종 | 57 편집 후기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굿모닝인천〉 外 |
| 34 인천무형문화재와 차 한잔
한명자 원초장 | 58 인천의 아침
인천상륙작전 기념 |
| 36 공감 만남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 59 한 컷 인천
포토 에세이 |
| 40 문화 줌 인 1
'태고의 지구, 백령도에서 우주를 보다'
전시회 | |
| 41 문화 줌 인 2
인천포크음악페스티벌 | |
| 42 시정 뉴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지원
활동 성료 外 | |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인천미소

—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naver.com/incheontogi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가장 인천다운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의 페이지를 넘기다가 인천은 한반도 남부와 북부의 중간 지대에 위치하며 육지와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이자 서울로 가는 관문이라는 글을 읽으며 인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굿모닝인천〉에서 인천의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많이 발굴해 주길 기대합니다.

추미선 중구 반달로

8월은 호국 보훈의 달

〈굿모닝인천〉표지를 보면 계절의 변화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 그달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8월이 되면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기 급급했는데 〈굿모닝인천〉표지를 보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좋은 매체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애영 부평구 경원대로

아암대로 갯벌 해안 산책로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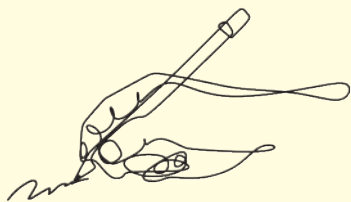
최근에 아암대로 갯벌 해안 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소래포구 해오름광장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방향으로 이어지는 코스인데요, 슬렁슬렁 걷기 참 좋습니다. 〈굿모닝인천〉‘골목길 TMI’에 이 길이 소개되어 반가웠습니다. 중간중간 벤치나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잠시 앉아 바닷바람 쐬기에도 좋습니다. 꼭 한 번 와보길 추천합니다.

김창섭 연수구 원인재로

더욱 멋진 인천의 변화를 기대하며

옛날 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하고 버려진 땅이 공원이 되는 등 인천이 나날이 의미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장점은 간직한 채 새로움이 더해지고 있지요. 〈굿모닝인천〉에 소개한 인천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가 더욱 멋진 인천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정미은 동구 우각로



낮보다 아름다운 저녁, 그리고 노을

글 이효경 남동구 은봉로

솔찬공원



송도국제도시 끝자락,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뒤편에는 아담하고 예쁜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서쪽 바다 해넘이 명소로 주목받는 솔찬공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곳은 인천대교 공사 당시 교각 구조 기초를 제작하고 자재를 반입하기 위해 조성된 접안시설이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전망이 아름다워 공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처음 이곳에 오게 된 건 카페 갤러리의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솔찬공원은 목적지였을 뿐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을 찬찬히 둘러보고 난 뒤 주객이 전도되었다. 조용한 산책로에 전망까지 근사한, 그야말로 핫 플레이스를 몰라봤던 것이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인천에 놀러 올 때면 꼭 솔찬공원을 소개한다. 친구들은 모두 서울 근처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명소가 있다는 것에 놀라며 환호성을 지른다.

솔찬공원 주위는 젊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가득하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를 비롯해 바이오 연구단지가 위치해 서일 테다. 점심시간 즈음이면 솔찬공원은 한층 활기를 띤다. 학생과 직장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남동구

에 살지만 연수구에서 일하고 있는 덕분에 솔찬공원은 나에게 우리 동네 같은 느낌을 준다. 마음이 답답하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면 으레 이곳이 떠오르고, 갈매기를 친구 삼아 머물곤 한다.

특히 솔찬공원은 일몰 사진 찍기에 그만이다. 무심하게 툭 셔터를 눌러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내 사진 앨범 속 일몰 사진은 대부분 솔찬공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해가 지면서 그 매력을 더욱 뽐내는 솔찬공원, 9월의 어느 저녁, 나는 또 이곳에서 근사한 노을을 만날 계획이다. 하늘을 날다 쉬는 갈매기도 작품이 되는 곳, 솔찬공원의 가을을 기대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분량: 200자 원고지 3매 내외

보내실 곳: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9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사연이 채택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유엔군이 상륙했던 월미도의 그린비치

평화의 바다, 상륙의 땅 인천상륙작전의 기억을 걷다

우리나라의 인후^{咽喉} 인천. 몽골 침입부터 병인양요, 신미양요,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 등 크고 작은 전쟁의 무대는 항상 인천이었다. 분쟁과 평화의 바다, 상륙의 땅, 인천.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위기에 응전해 한반도를 지켜낸 인천은 오늘 300만 인천 시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인천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 인천에 붙은 ‘세계의 전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세계가 괄목상대하는 ‘평화와 화합의 도시’로 웅장하게 비상할 차례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그래퍼
참고 자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천과 한국전쟁 이야기>, <인천 1950>

인천항의 정면에 버티고 서서
한반도를 지켜낸 섬, 월미도.
어스름 새벽, ‘그린비치 표지석’
앞에 서니 가슴이 저릿하고 시리다.
73년 전 땅과 바다를 흔든
호국의 함성이 들리는 듯 하다.



강용희 참전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장



취재 영상 보기

한국전쟁의 분수령, 인천상륙작전

—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33분. 미군 제7함대를 주축으로 한 261척의 함정과 유엔군 7만 5,000여 명의 병력이 인천 월미도(그린비치)에 상륙했다. 미군 2개 사단(1해병사단·7사단)과 한국군 2개 연대(17연대·제1해병연대)가 작전에 참여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 인천항의 수로는 좁고 물살은 빨랐다. 10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와 질퍽한 갯벌은 상륙작전을 펼치기엔 최악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태평양 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작전을 감행해 불리했던 전황을 한 번에 뒤집었다. 월미도에 상륙해 교두보를 확보한 아군은 경인국도를 따라 진격,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며 한국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목숨 바쳐 싸울 각오가 돼 있었죠.” 강용희(92) 참전유공자회 인천광역시지부장은 그의 나이 스무살에 8240부대에 입대해 무수한 전투를 치렀다. 8240부대는 서해 도서 지역과 황해도 내륙, 동해 등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대북 첩보·유격 부대다.

한바탕 격전을 치르고 나면 부대원의 절반이 사라졌다. 그도 생사의 기로를 수없이 넘나들었다. “전쟁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인천항의 정면에 버티고 서서 한반도를 지켜낸 섬, 월미도. 어스름 새벽, ‘그린비치 표지석’ 앞에 서니 가슴이 저릿하고 시리다. 73년 전 땅과 바다를 흔들었던 호국의 함성이 아득하게 들리는 듯하다.



월미도 선착장 근처에 세워진 그린비치 표지석

2단계 상륙 지점, 북성포구와 낙섬사거리

— 상륙은 2단계 작전이였다. 1단계는 월미도에 상륙해 점령하는 것, 2단계는 인천에 상륙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은 첫 상륙 지점인 월미도를 그 린비치라 칭했고, 2단계 작전 대상인 중구 북성동과 미추홀구 용현동 낙섬 사거리를 각각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라 명명했다.

두번째 상륙은 오후 5시 30분부터 이뤄진다. 만조를 기다린 것이다. 레드비 치(북성포구)로 상륙한 미 제5연대 1·2대대 해병대는 응봉산과 향만을 확 보하는 데 성공했다. 블루비치(낙섬사거리)로 상륙한 제1연대 해병대의 임 무는 수봉산을 차지해 적군이 인천으로 들어오거나 인천에서 탈출하는 것 을 막는 것이었다. 9월 16일부터는 인천 시내에서 적군을 소탕해 일사천리 로 인천을 탈환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3개의 상륙 지점에는 오석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인 천상륙작전 참전회가 지난 1994년 9월에 건립했다.

전쟁의 핏물이 씻긴 70년, 2023년 9월의 인천은 평화롭다.

레드비치는 월미도로 향하는 여행객과 내항 8부두 주변을 오가는 대형 화 물 트럭으로 분주하다. 하늘엔 바다 열차가 느릿느릿 슬로모션처럼 날아간 다. 공장지대에 둘러싸인 북성포구는 아슬아슬하게도 물길에 막히지 않았 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그날을 상기시킨다. 낙섬사거리로 발길을 돌린다. 상륙정들이 갯벌에 앞문을 대고 해병대를 쏘 아낸 블루비치는 오늘 매립으로 육지가 돼버렸다. 사거리 고가에 올라 빙 둘러봐도 본래 바다였음을 알 길 없지만, 1970년대 초까지 낚시도 하고 수 영도 하는 해안가였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 파이고 덧대어 단단해진 땅, 그 한가운데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 파이고 덧대어
단단해진 땅, 그 한가운데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긴다.



북성동 대한제분 앞에 세워진 레드비치 표지석



블루비치 표지석은 용현동 낙섬사거리에서 아암대로 방향 우측 인도에 자리 잡고 있다. 유엔군이 상륙한 바다 건너 낙섬은 오늘 매립으로 육지가 됐다.



인천상륙작전 레드비치의 현장, 북성포구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향민들의 화합의 마당
‘인천 이북도민 문화축제’를 연다.



이인철 이북오도민연합회장

질곡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

— 휴전 후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피란민들은 고향과 가까운 인천에 터를 잡았다. 원주민 들과 뒤엉켜 이산의 고통과 보릿고개를 견디며 억척스럽게 삶을 일구었다. 주로 만석동과 북성동, 수봉공원과 독쟁이(용현동) 등지에 모여들어 움막을 짓고 ‘꼬방동네’를 형성했다.

이인철(72) 이북오도민연합회장의 고향은 독쟁이다. 광복 직후 함경도에서 월남한 그의 부모는 핏 덩이를 엮고 부산으로 피란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인천으로 돌아와 정착했다.

전쟁의 피해는 참혹했다. 하지만 생채기가 아물 새도 없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살아남아야 했 어요.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꿀꿀이죽, 제분공장에서 나온 거칠거칠한 사료 원료로 수제비 해 먹 고… 그것마저도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바다는 빈손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에게 품을 내주었다. “부두에서 ‘가대기(하역)’를 하거나 인천항 축조 공사에 뛰어들어 간신히 생계를 이었어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만석동 석탄 부두 화차에 서 떨어진 석탄이나 산에서 떨어진 돌을 팔아 연명했어요.”

이 회장이 열 살 즈음 집집이 연탄 아궁이를 놓았다. 생활이 안정되자 고향을 그리던 실향민들은 1950년대 말부터 서로 소식을 알고 지내자는 취지로 향우회를 조직했다. 실향민 자녀들을 위한 장 학사업, 망배단 설치, 도민을 위한 공원모지 조성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향민들을 위한 화합의 마당 ‘인천 이북도민 문화축제’를 연다. 9월 16일엔 내항 8부두의 상상플랫폼에서, 다음 날엔 강화평화전망대로 함께 간 다. 모처럼 가슴이 편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지금 인천에서 평화의 꽃이 피어난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해병대 용사들이 서명한 태극기.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태극기는 수호의 상징이자 희망이었다.

인천상륙작전 73주년, 아픔 딛고 미래로

— 인천상륙작전은 한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버린 한국전쟁 초반 전세를 순식간에 뒤집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상륙작전(1944년 6월 6일)에 비견될 만큼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시는 올해로 73주년을 맞은 인천상륙작전의 기념행사를 프랑스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 못지않은 국제행사로 치른다. 국가적 기념행사로 격상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9월 한 달 간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범시민 행사가 이어진다. 9월 14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기억, 추모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9월 1일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온라인 사진전이 시작된다. 우리 시와 해군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승전을 재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를 인천 앞바다에서 펼친다. 11일 팔미도 등대 탈환·점등 행사를 시작으로 15일에는 해상 전승기념식과 연합상륙작전 재연 행사, 해군 첩보부대 전사자 추모식 등이 열린다.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도 이어진다. 14일 내항 8부두에서 승전 특집 ‘KBS 가요무대’가 펼쳐지며, 호국보훈 거리행진, 어린이 그림·취화 그리기 대회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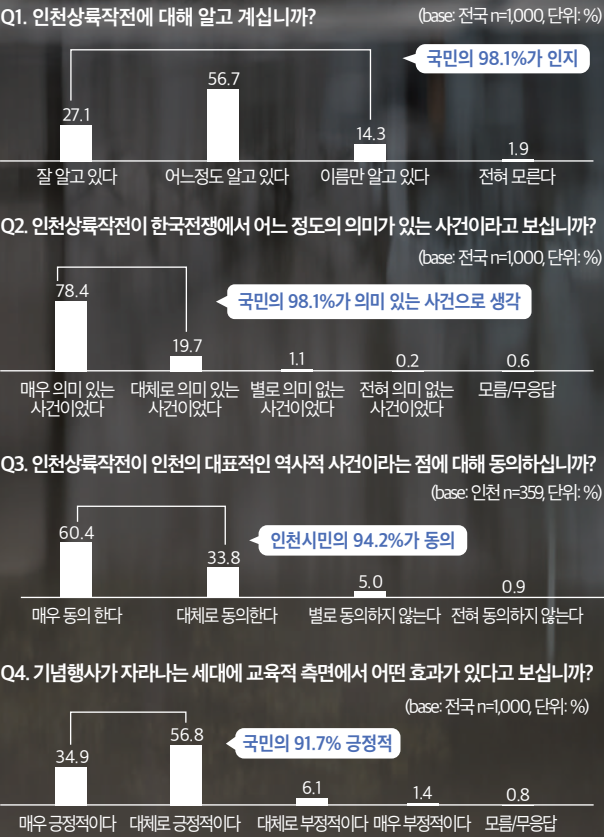
우리 시는 75주년을 맞는 2025년에는 인천상륙작전 참전 8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성대한 국제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픔을 딛고 미래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와 함께. 이제 인천이 역사를 깨워 바로 세운다.



시는 올해로 73주년을 맞은 인천상륙작전의 기념행사를 범시민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인천을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집의 장으로 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 참여자 수 전국 1,000명(인천 359명)
조사 방법 전화 면접 조사 | 조사 기간 2023.5.31.~2023.6.2. | 수행 인천연구원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기념 주간 2023.9.14~9.19.
행사 장소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월미도 일원 등

일정	장소	행사명
9월 1일	강화	DMZ국제자전거대회
9월 8일	송도컨벤시아	국제평화컨퍼런스
9월 9일	월미도 일원	단축마라톤대회
9월 11일	팔미도	월미도 등대 탈환 점등 행사
9월 14일	내항8부두	전승 특집 KBS 가요무대
9월 15일	팔미도 근해	기념식 및 재연 행사
	월미공원	해군 첩보부대 전사자 추모식
	월미공원	월미도 원주민 추모·헌화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헌화
	아트플랫폼~캠프마켓	호국보훈 거리 행진
9월 16일~19일	내항8부두	참전국 주한 외교대사 초청 행사
		함정 공개 행사
		안보 전시관 운영
		인천 이북도민 문화축제
9월 17일	수봉공원	평화기원 그림 그리기 대회
9월 15일~17일	인천 CGV	인천상륙작전 영화 특별관 운영
9월 18일	오크우드호텔	인천국제안보회의
9월 1일~30일	시 홈페이지	온라인 사진전

살아가는 바다

바다, 물고기, 사람에 관한 이야기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 디렉터

‘더(The) 인천’을 더(More) 알아가다. 지금 발 딛고 선 도시, 살아가는 동네, 그 안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인천 곳곳에 깃든 인천 사람 저마다의 삶과 기억, 숨은 이야기를 찾아 기록한다. 인천에는 168개 섬과 바다가 있다. 축복이다. 민어, 조기, 홍어, 숭어, 농어, 광어, 뱀뱀이... 갯벌과 모래펄을 품은 서쪽 바다엔 예로부터 사시사철 자연의 산물이 모여들었다. 바다는 물기 어린 삶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난 사람도, 꿈을 찾아 물에서 온 사람도 기꺼이 품에 안았다. 뱀사람들이 비바람 맞고 파고를 넘으며 낚아 올린 싱싱한 날것들은 오랜 세월 우리네 밥상 한편을 지켜왔다. 허기진 배와 마음마저 든든히 채워주었다.

“어부와 그들이 잡은 물고기가 없었다면 인류 문명도 없었다.” 고고학자 브라이언 페이건^{Brian Fagan}은 ‘바다와 고기잡이’가 인류의 삶을 지탱하고, 어부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르게 했다고 말한다.

서쪽 바다에 가을이 왔다. 장마가 걷히고 여름 금어기도 지났건만, 바다 건너 나라에서 전해온 뒤송송한 소식에 ‘애써 잡은 물고기를 사람들이 외면하면 어쩌나’, 어민의 주름이 깊어간다. 돌아보면 바이러스가 일상을 뒤흔들며 밀려들던 시간도 이겨냈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평생을 배 위에서 버텨온 세월이 아니던가.

‘살아가는 바다’는 바다, 물고기 그리고 바다를 마시고 바다에서 살다 바다로 돌아갈 ‘인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영상 보기

‘우리 바다 먹거리’ 안심하고 드시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 특별 단속 빈틈없이 실시

우리 시는 2021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시점부터 수산물 안전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먼저 시는 방사능 검사를 대폭 늘려 부적합한 수산물의 유통을 원천 차단합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는 관내 양식장 및 위 공판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연말까지 200건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수산물 안심관리 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해 양식장 방사능 검사를 면밀하게 진행합니다. 대형마트와 어시장에 유통하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안부두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280여 건이던 방사능 검사를 올해 600건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대였던 방사능 검사장비를 5대로 확충하며, 지난해 292건이었던 검사 건수를 800건으로 늘리고, 검사 결과는 검사기관 수산기술지원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또 시료 채취부터 분석까지 모든 방사능 검사 과정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높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특별 단속도 강화합니다. 위축된 수산물 소비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명절 전통어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다음달 수산물 직거래장터 할인행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 수산과 440-4882

만선의 지역

· 덕적도 북리항(北里港)에서 배를 기다린다.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펄럭이는 깃발이 보인다. 민어잡이 배가 만선으로 출렁이며 집으로 오고 있다. 섬에는 ‘같은 날 제사 지내는 집이 많다’. 섬 아낙은 이제야 한시를 놓는다.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선갑도, 굴업도, 백야도, 울도 등 덕적군도 섬의 근해는 풍요로운 바다 곳간이다. 그중에서도 덕적도 바다는 민어, 조기, 도미, 가자미, 새우, 농어... 온갖 물고기로 황금 물결을 이룬다. 굴업도 바다는 민어와 조기 밭이었다. 1920년대 5·6월에 조기가 그득히 차고 7·8월에 민어가 차오르면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 각지와 중국, 일본에서 온 고기잡이배들이 새까맣게 물러들었다. 그러다 1923년 8월 불어닥친 태풍이 섬을 무참히 휩쓸었다. 바다로 간 수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굴업도가 지고 덕적도 북리가 ‘어업 전진기지’로 새롭게 떠올랐다.

바다



백령도 전촌 바닷가, 척박한 바다 위 삶의 치열



소래항 주꾸미잡이 배 '열정호'의 삶의 현장



오늘, 정적이 흐르는 덕적도 북리항(위)
1960년대, 민어잡이배로 북적이던 북리항(아래)

바다, 어머니의 품

·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덕적도 북리는 민어 파시로 흥청거렸다. 섬에 극장, 다방, 목욕탕, 당구장이 생겨났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돈을 따라 육지 문명이 흘러들어 ‘작은 인천’을 이뤘다. 민어가 하도 많이 나서 귀한지도 몰랐다. “날씨 좋으면 동네 아이들이 소풍 삼아 고기잡이배에 따라 올라타곤 했어. 뱃일을 마치면 아이들 품에 커다란 민어 두세 마리씩 척척 안겨줬지.”

강명선(81) 어르신은 1950~1960년대 섬에서 목선을 만들던 조선공이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날의 기억,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깊어져 간다. 온 세상이 변해도 바다는 그대로일 줄 알았다. “당시엔 금 어기도 없이 안강망(鰲鰐網)으로 어린 물고기까지 강그리 굶어모았어. 평생 물고기가 날 줄 알았던 게야.” 그렇게 파시는 자취를 감췄다.

“돈 실으러 가세, 돈 실으러 가세. 연평 바다로 돈 실으러 가세. 연평 바다에 널린 조기 연평 장군님 모셔 싣고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가세.” 노동요 ‘연평도 배치기소리’.

꽃게 어장으로 알려진 연평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기잡이 어장이었다. 1930년대 연평도에는 주민 1,000여 명이 살았는데, 4월부터 6월 조기잡이 철이면 뱃사람과 상인 2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연평도 파시는 1968년 5월을 마지막으로 더는 열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바다다.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엔 갯벌과 모래밭이 쌓여 해양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어준다. 멀리 서해 5도에 이르기까지 168개 섬이 보석처럼 박힌 바다는 힘차게 넘실 거린다. 강화도의 선두어장과 장봉도의 만도리어장, 덕적도의 뒷면어장, 울도의 방우리어장 등 예로부터 풍요로운 바다엔 철마다 어선들이 고기 떼를 따른다.

강화도의 외포리·황산포, 교동도의 남산포 등 섬 포구엔 비린내가 진동하고, 화수부두·만석부두·북성포구·소래포구는 바로 앞까지 도시가 침범했는데도 곳곳이 살아남았다. 인천 바다는 여전히 날것 그대로 생명력 넘치고 바닷가 사람들은 부단히 오늘을 살아낸다.

바다의 황금시대는 끝났지만, 역사는 오늘로 남았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어업,
살아가는 일

바다에 살다 사람



전통 어로 방식 '소라방잡이'로 주꾸미를 잡는 '김정호' 사람들(위)
'어머니의 이름'으로 바다로 뛰어든 백령도 해녀 김호순(아래)



일흔을 훌쩍 넘긴 어머니는 오늘도 물속 깊숙이 뛰어든다. 차디찬 바다에서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삶과 죽음 사이를 자맥질한다. “휘이, 휘이...” 어머니가 바닷속에서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쏟아낸다. “죽으러 들어가서 살아 나온다”라고 했다. 해녀라고 해서 바다가 어찌 두렵지 않으랴. 그런데도 기어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건, 그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서해 최북단에 오롯이 핀 섬, 백령도. 6년 전, 그 섬에서 김호순(75) 어르신을 만났다. 그는 제주 바다에서 태어나 열다섯 살 되던 해에 외지로 물질을 하러 나셨다. 백령도에는 35년 전 즈음 왔다. “바닥에 전복이며 해삼이 짝 깔린 거야. 거기에 반해서 내 여태껏 살고 있어.”

일본 어민들이 제주 어장을 빼앗으면서 1900년대 이후 해녀들은 고향 밖으로 물질을 갔다. 우리나라를 넘어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바다를 찾아 떠났다. ‘출향 해녀’다. 1927년 문예지 <습작시대>에 실린 김동환의 시 ‘월미도 해녀요 海女謠’는 인천 앞바다에 해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아무리 바람 불고 물속이 캄캄해도 난 하나도 무섭지 않아. 물속에선 누구도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가난을 타하지도, 지켜만 보지도 않았다. 척박한 환경을 기꺼이 끌어안고 평생을 스스로 나아갔다. 어머니는 해녀다.

1만 년 전 인간은 작살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어로 漁撈는 인간 삶의 역사와 궤적을 함께한다. 어민은 어업이 생업,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인 사람들이다. 운명과 육체의 고통 따위는 잊은 채 거칠고 건잡을 수 없는 세계에 정면으로 맞서 살아간다. 심연의 바다가 그들 삶의 최전선이다.



거센 파도에
힘싸일지라도

아버지가 파도가 시퍼렇게 달려드는 바다 한가운데 버티고 섰다. 펄럭이는 깃발에 만선을 꿈꾸며 그물을 끌어 올린다. 건지는 것이 어찌 꽃게뿐이라. 물에 있는 아내와 자식 얼굴이 떠오른다. 그가 낚아 올리는 건 삶의 ‘희망’이다. 새벽 세 시, 소래포구에서 닻을 올린 꽃게잡이 배 ‘삼영호’가 굴업도 인근 바다에 닿았다. ‘때’가 왔다. 뱃사람들이 쉬지 않고 그물을 걷어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길고도 힘겨운 시간이 이어진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와 거센 파도, 쏟아지는 빗속에 출렁거리는 배... 바다 위 ‘극한 직업’이 누군가에겐 일상이다.

강화 석모도와 장봉도 사이에 있는 만도리어장. 아버지는 벌써 두 달째 집으로 가지 못했다. 새우잡이배는 뱃일을 한번 나가면 몇 달씩 바다에 머문다. 잡은 새우를 물로 나르는 운반선이 세상을 잇는 유일한 통로다. “격강천리 隔江千里야. 육지가 가까이 있어도 닿을 수 없어. 새우 다 잡을 때까지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거지.”

김철성(68) 유신호 선장은 국민학교만 겨우 나와 먹고살기 위해 어부가 됐다. 살아온 삶에 후회는 없다. “몸뚱이 말고는 가진 것 없이 시작해 어엿이 내 배를 부리고 있어.” 검게 그을린 얼굴에 희로애락으로 엮여온 세월이 순간 드리운다.

인천, 그 바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안강망 어업으로 황금 물결이 일렁였다. 생태 환경이 변하고 마구잡이로 그물을 던지면서 풍요롭던 바다는 메말라 갔다. 1970년대 이후엔 산업화의 거센 물결에 자리를 내어주고 검게 물들어 갔다. 배는 먼 바다로 바다로 나아갔다. 그 순간순간 바닷사람들은 바다의 들숨과 날숨에 호흡을 맞추며 함께해 왔다. 어장과 포구는 오늘도 삶의 터전이다. 엄마 몸에서 나던 비릿한 냄새, 지워지지 않을 삶의 향기가 그 안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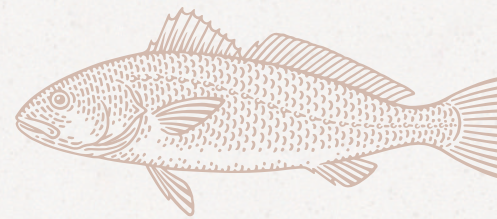
굴업도 인근 바다에서 삶의 희망을 낚아 올리는 ‘삼영호’ 사람들(위)
거친 파도와 바람이 몰아쳐도 기어코 배를 타야 하는 것이 바닷사람들의 운명이다.(아래)

물고기가 ‘서쪽바다’ 밥상

바다와 맞닿은,
삶의 이면



신포시장 민어 골목 ‘경남횃집’의 민어회.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주꾸미.
무의도에서 난 박대와 ‘벌버리목’의 재료인 박대 껍질.
강화 바다에서 잡은 젓새우, 배 위에서 바로 소금에 버무려
새우젓을 담근다.(왼쪽부터)



밥상 위,
찬란한 행복

박대는 ‘민^민’의 생선이다. 가자미목 참서돔과 생선으로, 몸이 납작하며 머리가 작고 눈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 ‘어머니에게 눈 흘기면 박대 눈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못생겼다. 그렇다고 박대를 박대^{박대}할 수만은 없다. 섬사람들은 조기나 민어처럼 돈이 되는 생선은 육지로 내다 팔고, 흔하디흔한 박대로 밥상을 채워 살아갈 힘으로 비축했다.

생선 비늘과 껍질도 다 쓸모 있는 것이라며 박박 긁어모아 목으로 만들어 먹었다. ‘벌버리목’은 황해도에서 전해온 서해 바닷가의 향토 음식으로 인천은 영종도, 무의도 일대에서 주로 먹는다. 집마다 그 빛깔이 모두 다른데 정성을 들일수록 맑고 투명하다.

그렇다면, 밥상 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물고기는 무엇일까? 어쩌면 젓새우다. 보이지 않게 다양한 음식에 스며들어 감칠맛을 낸다. 고유의 풍미도 짙다. 폭 삶은 부드러운 돼지고기 한 점을 젓새우에 찍어 먹는 맛이란. 그뿐인가, 기꺼이 다른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어 거대한 바다 생태계를 움직인다. 과연 밥상 위의 숨은 강자다. 젓새우는 강화도 연간 어획량의 30%에 이른다. 특히 9월에서 11월,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의 70%가 강화 어장에서 난다. 이 가을, 아버지의 새우잡이 ‘콩당배’가 바다에 섬처럼 머물러 있으리라.

민어, 삼치, 가자미, 새우, 조기, 홍어, 숭어, 농어, 광어, 뱀장어... 인천 바다에는 예로부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날것들이 삼시 세끼 밥상을 풍성하게 채웠다. 그저 밥 한술에 갇든 이토록 찬란한 행복이, 바다로부터 왔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날것으로 풍성하게 채운 밥상. 그 안엔 바다와 맞닿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 한 그릇 똑딱 맛있게 비우고 말기엔 미안한 마음이 든다. 서쪽 바다로부터 온 밥상에서, 땅이 아닌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깊고 푸른 바다는 지구의 70%를 이룬다. 그 속을 유영하는 생명들은 자연이 선사하는 귀한 식재료다. 인류 문명을 시작할 때부터 인간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아낌없이 내어 주었다.

그렇다면 수산물을 가장 즐겨 먹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우리나라다. OECD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한국이 58.4kg으로 세계 1위다. 인천은 더구나 바다의 도시가 아니던가. 바다와 갯벌에서 펴떡이는 생명들이 정성스러운 손길을 거쳐 오랜 세월 밥상 한편을 지켜왔다.

민어는 귀한 생선이다. ‘백성 민^민’ 자가 들어가는 이름과 달리 조선 시대 임금과 사대부의 상에만 올릴 수 있었다. 덕적군도 바다에서는 1960년대까지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이 잡혔다. 하지만 자연환경이 달라지면서 그 많던 민어는 신안과 목포 남쪽 바다로 떠났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맛의 역사는 오늘, 신포시장 오래된 골목에서 이어지고 있다.

민어는 탕으로 끓여도, 회로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다. ‘민어의 꽃’ 부레는 쫄득하면서도 부드러우며, 껍질은 또 그대로 쫄깃하고 고소하다. 뱃살은 담담하면서도 달짝지근 구수하다. 두툽한 민어 살이 묵직하게 입안으로 파고든다. 그 옛날 풍요로운 덕적 바다가 밀려든다.



어업 중인 꽃게잡이 배 ‘삼영호’.
꽃게만 잡히는 게 아니다. 아귀, 농어... 별게 다 걸려 올라온다.



신포시장 민어 골목 ‘경남횃집’의 제형남 대표.
숙성시킨 민어를 손에 들고 있다.

그곳, 모래갯벌에 백합, 白蛤



장봉도 갯벌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쉰다. 조개의 여왕 '백합'도 장봉도 지천이다.



온몸의 감각을 열고 인천을 음미한다. 인천의 고유한 먹거리와 정성 어린 손맛으로 빛나는 오감 만족 레시피. 이번 요리는 뽕양게 우러난 국물이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백합탕'이다. 서쪽 바다의 햇살, 바람, 숨결을 맞으며 장봉도 모래갯벌에서 자란 백합^{白蛤}을 듬뿍 넣고 보글보글 끓여 완성했다. 그 섬 웅암해변에 안긴 '비치식당'의 박재순 대표가 정성 어린 손맛으로 담아 선보인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류창현 포토 디렉터
요리 박재순 장봉도 '비치식당' 대표 | 스타일링 강지인·김예진

장봉도 갯벌은 수천 년 시간이 켜켜이 쌓인 생명의 보고다.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가 날고
동죽, 범게, 바지락 등 바다의 보석이 무수히 박혀 반짝인다.
크고 하얗게 빛나는 백합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풍부한 햇살과 바람, 적당한 온도,
섬을 둘러싼 모래가 수많은 생명을 살아 숨 쉬게 한다.



갯벌 위로 바닷물이 차올라 물결치는 장봉도 바다.
그 위로 시나브로 노을이 내린다.

섬 모래갯벌에 박힌 '하얀 보석'

푸른 바다가 밀려간 자리에 황금빛 회색 웅단이 드넓게 펼쳐진다. 저만치 멀어진 바다 물결이 햇살 아래 일렁인다. 여름의 끄트머리, 가을의 시작점. 바닷바람 따라 영종도와 강화도 사이, 북도면 신도·시도·모도 삼형제섬과 사이 좋게 이웃한 장봉도를 찾았다. 섬은 인천에서 서쪽으로 21km, 강화도에서 남쪽으로 6.3km 떨어진 바다 위에 있다. 배 타고 단 40분이면 닿는다.

한강과 임진강이 조강에서 한데 어우러져 강화도 염화수로와 석모수로를 지나 이 섬 모래갯벌까지 흘러 들어간다. 강과 바다가 만나 굽이쳐 흐르니 사시사철 자연의 산물이 모여든다. 풍부한 햇살과 바람, 적당한 온도, 섬을 둘러싼 모래가 수많은 생명을 살아 숨 쉬게 한다.

장봉도 갯벌은 수천 년 시간이 켜켜이 쌓인 생명의 보고다.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가 날고 동죽, 범게, 바지락 등 바다의 보석이 무수히 박혀 반짝인다. 크고 하얗게 빛나는 백합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이 조개는 껍데기에 새겨진 무늬가 마치 백합^{白合} 같아 이처럼 고운 이름이 붙었다. 장봉도 사람들은 조개 중에 으뜸으로 여겨 상합^{上合}이라고 부른다.

백합은 수심 10~20m의 조간대 모래갯벌에 주로 산다. 조간대는 생물종이 가장 풍부하고 밀도가 높은 해양생태계다. 백합은 우리나라에서는 충청남도과 전라도 연안이 주 서식지로, 인천에서는 웅진군 장봉도와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에 자리 잡고 산다. 매립과 간척으로 새만금 갯벌이 지도에서 사라지면서 인천이 백합의 주요 산지가 됐다. 전복이 '조개의 황제'라면, 백합은 '조개의 여왕'이다. 그만큼 알이 굵고 실하다. 또 식감이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데 맛이 깊고 풍부하다. 날것 그대로 먹어도 맛이 그만이거나 굵거나 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었다. 특히 백합탕은 뽕양고 시원하게 우러난 국물 맛이 일품. 섬 텃밭에서 자란 싱그러운 채소와 아낙의 손길을 더해 '서쪽 바다를 오롯이 품은 한 그릇'을 완성했다.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자연은 더 오묘하고 깊은 맛을 선사한다.



장봉도 웅암해변 '비치식당'의 박재순 대표

섬 마음 담은, 뜨끈한 한 그릇

“장봉도 바닷가에는 그 귀한 백합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부드러운 식감과 깊고 풍부한 맛에 모두 반합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백합을 냄비에 잔뜩 넣고 우르르 끓여 먹는 맛이란. 박재순(57) 대표는 장봉도 웅암해변 앞에서 10년째 식당을 꾸리고 있다. 진주가 고향인 그는 남편과 영종도 을왕리를 거쳐 이 섬에 머물고 있다. 장봉도에는 갯일이 좋아 자주 오곤 했다. 언젠가 물때에 맞춰 놀러 왔다가 문득 ‘여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아예 눌러앉게 됐다. 산에서 나물 캐고 바닷가에선 소라 줍고 조개를 캐고 운이 좋으면 낙지도 잡는다. “지폐를 줍는 거나 다름없어요. 바다 별판에 못 나가기라도 하는 날엔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답니다.”

육지와 바다로 가로막힌 삶. 밀물처럼 밀려들던 사람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면 외로운 마음도 든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지나갔나 싶었는데, 여름 휴가철에도 찾는 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처음엔 애가 났는데 이제 ‘찬 바람 불면 사람들이 찾아와 주겠지’ 하며 마음을 달래고 있다.

“여기, 백합탕 한 그릇 주시오.” 고른 한낮, 낮선 얼굴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가게를 찾았다. 서울에서 장봉도까지 혼자 여행을 왔다고 했다. 거동이 힘겨워 보이는 손님을 위해 박 씨가 살뜰히 조개껍데기를 까서 살을 발라 밥상 위에 올려준다. 어르신이 탕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막걸리까지 마신 후 기운을 차리고 길을 나선다. 누군가의 허기진 삶마저 배부르게 채우는 일, 이 맛에 섬 아낙은 오늘도 뜨거운 불 솥 옆을 지킨다.

장봉도 '비치식당' 웅진군 북도면 장봉로 198,
032-752-4542



장봉도 갯벌에서 난 백합을 아낌없이 넣어
뜨끈한 탕으로 보글보글 끓였다.

서쪽 바다의 풍미가 오롯이 담긴 한 그릇,
그 맛이 시원하면서도 깊고 풍부하다.



재료 백합 2kg, 배추 30g, 무 40g, 당근 10g, 파 1대, 청양고추 4개,
마늘 6알, 갯잎 4장, 육수 1.6L

‘백합탕’ 레시피

유명 셰프가 만든 음식도, 예약해야 먹을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메뉴도 아니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마음 마저 든든히 채워 주는 맛. ‘시민 셰프’를 위한 ‘인천 오감 레시피’. 이번 요리는 장봉도 모래갯벌에서 캐낸 백합을 담백 넣고 시원하게 끓여낸 ‘백합탕’이다. 바다 너머 육지까지 입소문이 난 ‘비치식당’ 박재순 대표의 아무진 손맛으로 완성했다. 정성 한 스푼, 사랑 두 스푼 담은 요리로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풍성하고 따뜻하게 채우자.

※ QR코드를 스캔하면 요리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리 영상 보기



만들기

- ① 백합은 해감하고, 갯은 채소는 깨끗이 씻어 준비한다.
- ② 무는 얇게 반달 모양으로, 배추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③ 당근은 굵게 채 썰고, 파는 굵고 어슷하게 썬다.
- ④ 고추는 송송 썰고, 마늘은 다진다.

- ⑤ 맛을 내는 비법으로 갯잎을 넣는데, 갯잎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⑥ 냄비에 육수를 넣고 무, 배추, 당근, 백합을 넣고 끓인다.
- ⑦ 백합이 입을 벌리면 갯잎, 파, 고추, 마늘을 넣고 한소끔 더 끓여 낸다.

‘시민 셰프’를 위한 백합 요리 Tip

‘조개의 여왕’ 백합. 조선 시대 왕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식재료로, 도톰하고 쫄면 속살은 그 맛이 깊고 풍부하다. 철분과 칼슘, 필수아미노산과 성인 하루 권장섭취량의 10배가 넘는 비타민 B₁₂가 들어 있어 몸에도 좋다. 갯 캐낸 백합은 회, 탕, 찜, 구이 등 어떻게 요리해 먹어도 맛있는데, 특히 탕으로 끓여 국물을 내면 진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우러난다. 식재료 본연의 풍미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정성을 더하면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박 대표는 배추, 무, 당근 등 섬 텃밭에서 키운 싱싱한 채소를 곁들이는데, 특유의 향을 지닌 갯잎은 국물 맛을 더하는 그만의 비법이다. 한편 조개는 여름이 산란기이므로 가을을 거치면서 살을 점점 찌워 찬 바람이 불수록 맛이 오른다. 입 벌리고 있는 조개를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을 때 껍데기가 닫히면 싱싱한 백합이다.

몸과 마음의 심표, 웰니스 여행 가볼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관리도 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이른바 ‘웰니스 여행’이 인기다. 심신의 건강과 안정, 젊음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반영한 웰니스 열풍이 관광 분야로까지 번진 것. 글로벌웰니스협회(Global Wellness Institute, GW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웰니스 투어리즘 시장 규모는 약 578조 3,046억 원에 달하며, 2025년까지 연평균 20.9%의 성장이 기대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함께 건강한 여정을 향한 부지런한 발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유승현 포토그래퍼



남동구 중경산 자락에 안긴 숲속 놀이터 ‘반디세상’

여행 심표의 힘

숲이다. 그저 숨만 쉬어도 스트레스가 훌훌 날아갈 것 같은 곳. 찬란한 초가을 햇벌이 내려앉고, 마당에는 꼬끼오 닭 우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한가득이다. 기억 저편에 있던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그렇게 심을 넘어 위로가 찾아온다.

남동구 중경산 자락에 위치한 ‘반디세상’은 숲속에 안겨 있는 치유와 놀이 공간이다. 하루 평균 50가정, 주말에는 150가정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좋으며, 재방문율도 높다. 지난해 인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

토요일 오전 동국명상원의 열린 명상 시간. “직장 생활 스트레스로 우울하고 불안감이 컸는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 원경숙 씨. “명상은 오롯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큰 행복감을 줘요.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밝아졌어요.” - 오태화 씨.

동국명상원은 호흡 명상, 싱잉볼 명상, 차크라 명상, 커피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별하고 건강한 여정을 선사한다. 최근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녀노소 찾는 이가 많다.



(위) 장효산 동국명상원 원장과 오태화, 원경숙 씨
(아래) 싱잉볼 명상 도구



인천의 주요 웰니스 관광지

잠시 일상을 잊고 새로운 시간에 젖어드는 여행. 웰니스 관광지를 찾은 사람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심표의 시간’을 선호한다. 힐링, 명상, 자연·해양 치유, 웰빙 푸드, 뷰티·스파 등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기꺼이 지갑을 연다.

장효산 동국명상원 원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되찾는 방법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연유로 명상 여행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휴식과 이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잠깐 고개를 들어 훌륭한 경치를 바라볼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요. 명상은 마음 건강을 챙기는 여행입니다.”



송도센트럴파크에 내려앉은 한옥 호텔 '경원재'. 한식당의 궁중보양식, 다도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인천시 웰니스 관광지

웰니스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운동(Fitness)의 합성어이다. 최근 들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며 즐거움을 얻는 웰니스 여행이 인기다.

- 2021년 선정** 더 스파 앤 파라다이스,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전등사 템플스테이, 연등 국제선원, 해든뮤지움, 마니산 치유의 숲, 왕산마리나 요트 체험(현대요트), 팔미도 여행(현대마린개발), 약석원, 동국명상원
- 2022년 선정** 더 스파 하스타, 바람숲 그림책도서관, 반디세상(반디치유농장), 파라다이스 시티 씨메르
- 2023년 선정** 금풍양조장, 농업회사법인 호박회관(덕적도), 뜨리니 요가앤싱잉볼, 석모도 수목원, 초연다구박물관, 톱아저씨 트리하우스

몸과 마음이 가뭇해지는 ‘웰니스 여행’

우리 시는 2021년도부터 매해 공모를 통해 ‘인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육성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6개소를 포함하면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올해 새로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는 금풍양조장, 농업회사법인 호박회관, 뜨리니 요가앤싱잉볼, 석모도 수목원, 초연다구박물관, 톱아저씨 트리하우스 등이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인천 웰니스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비건·로컬 등의 신규 웰니스 관광지 발굴·육성 및 지역 내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관광지의 특색 사업 발굴과 홍보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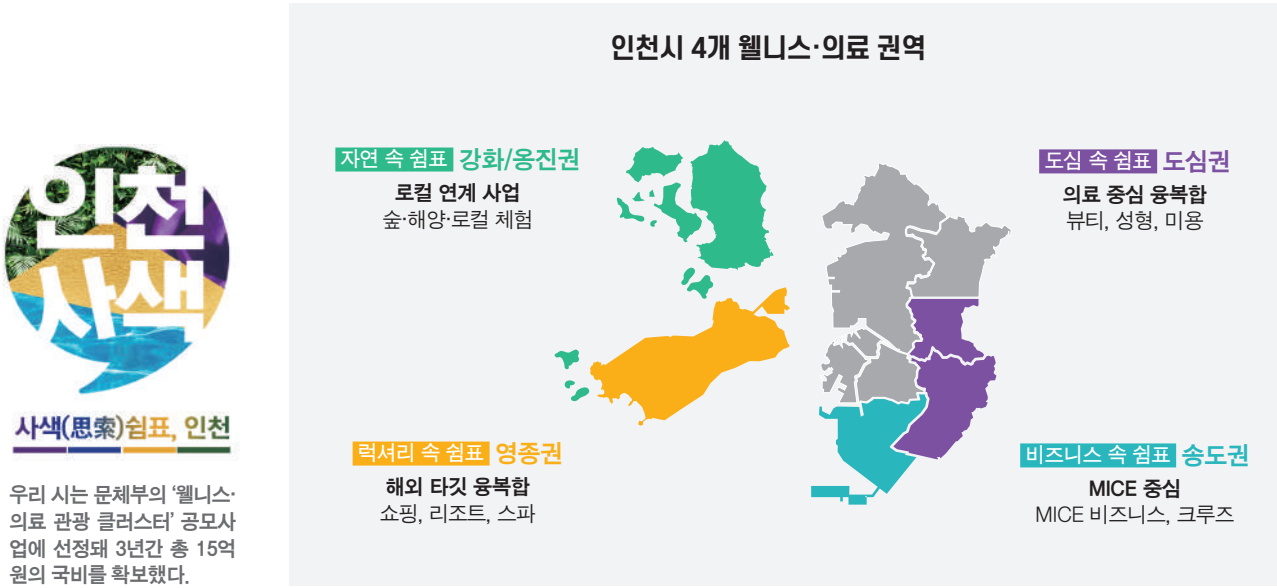
숲 놀이터 ‘반디세상’은 올해 맨발 걷기, 숲속 명상, 물총 놀이 등을 새롭게 운영한다. 숲속에서 산림욕을 즐기며 맨발로 걷고 자연과 하나 되어 노는 치유 프로그램이다. 파라다이스시티의 뷰티 스파 ‘씨메르’에는 아로마 명상, 선셋 요가, 아쿠아 줌바 등 물에서 즐기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천은 천혜의 자연과 도심 속 힐링 공간을 곳곳에 갖추고 있다. 지난해 인천 웰니스 관광지 15개소에서 총 7만543명이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휴식과 재미가 공존하는 웰니스 관광지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시 관광마이스과 032-440-4103

인천 사색^{四色}-사색^{思索} 실패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건강·휴식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웰니스와 의료의 융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와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통합했다.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는 문체부의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1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사색(四色)-사색(思索) 실패, 인천’을 주제로 4개의 웰니스·의료 권역을 선정하고, 각 콘셉트에 맞춘 특화 상품 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다. 4개 권역 중 도심권은 의료·뷰티, 송도권은 마이스(MICE), 영종권은 휴양·럭셔리, 강화/옹진군은 숲·자연 치유가 중심이다. 국제공항과 고품격의 의료 서비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만큼 ‘K-웰니스·의료 관광’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시는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 웰메디(Well-Medi) 페스타’를 열고 관광 콘텐츠 알리기에 적극 나선다.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 전문교육도 지속 운영한다. 일상 회복과 함께 재도약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심에서 인천이 여행 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고 있다. 문의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7



영종도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왕산마리나’. 요트 세일링, 선상 파티, 패들링 요가, 노을 투어 등을 즐길 수 있다.



인천에서 살아가는 갯대중의 5형제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의 친구 인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엔 무수한 동식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공존한다. 새가 없으면 해충이, 최상위 포식자가 없으면 초식동물이 크게 늘어난다. 먹이사슬이 붕괴돼 생태교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인천시는 지속 가능한 지구환경을 만들어가자는 ‘탄소중립’을 정부 목표보다 5년 앞당겨 선언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다. <굿모닝인천>이 2023년 세계를 지키는 인천 생태계를 탐구한다.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 여덟 번째 생태 탐험으로 ‘인천시 갯대중’ 5형제를 만난다.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홍승훈 포토그래퍼



송도 갯골의 저어새



대청·백령도의 대청부채

인천시, ‘제51회 지구의 날’ 맞아 인천 상징 ‘깃대종’ 5종 선정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
우리 인천시는 ‘제51회 지구의 날’(2021년 4월 22일)
을 맞아 인천을 상징하는 깃대종 5종을 선정했다. 깃
대종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제안, 지
역 생태계를 대표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
영해야 한다. 우리 시는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5종
의 깃대종을 선정하면서 ‘생태 가치 자원 발굴’과 ‘지
속 가능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렸다.

이후 인천 깃대종을 보호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
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우리 시는 ‘인천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
램 개발 운영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시민 가운데서 선발해 깃대종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
을 진행하는 ‘깃대종 서포터즈’를 운영했고,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깃대종 생태 교실’을 열어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 주었다. ‘깃대종 생
태 관광 투어’를 통해 남동유수지(저어새), 인천대공
원(금개구리), 대청·백령도(대청부채, 점박이물범), 영
종도 씨사이드파크(흰발농게)를 돌아보며 깃대종을
관찰하는 시간도 가졌다.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 등 인천의 깃대종

저어새

흰색 깃털을 가졌으며, 주름진 주걱 모양의 긴 부리를
가진 새이다. 몸길이는 60~78.5cm로 번식기엔 노란
색 가슴 띠와 머리 뒤 긴 갈기(장식깃)가 생긴다. 주요
번식지는 남동유수지, 남동구 수하암, 강화도 각시바
위 등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 4,800여
마리 중 80%가 인천에서 번식한다. 저어새의 고향이
인천인 것이다.

금개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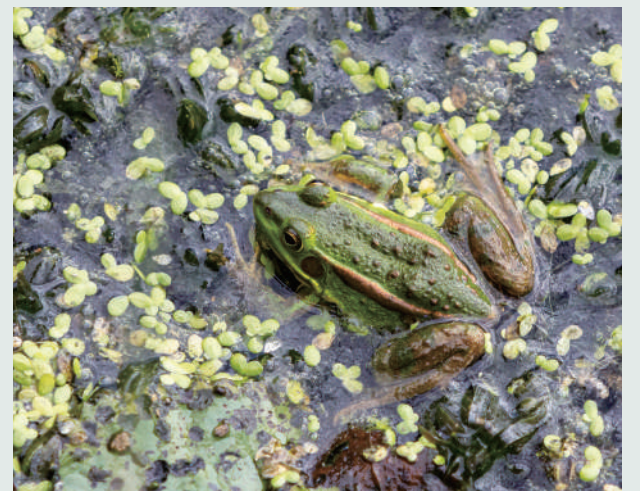
등에 두 줄의 금색 띠가 있다. 몸길이는 3.5~6cm로
암컷이 수컷에 비해 몸집이 2~3배 크다. 강화군 송해
면, 계양구 서운동에서 발견되며 저지대의 논, 농수
로, 배수로, 물웅덩이, 습지, 저수지의 수초가 무성한
곳에서 서식한다. 4월에 겨울잠에서 깨어나 5월부터
7월까지 알에서 깬 장소에서 살아간다.

점박이물범

몸길이 1.4~1.7m, 몸무게 82~123kg인 동물이다. 회색
이나 황갈색 바탕에 검은색과 흰색 점무늬가 있다. 짧
은 주둥이를 가졌으며, 몸 전체가 부드러운 털로 덮
여 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털갈이를 하며 방수와 보
온 기능을 유지한다. 명태와 청어 같은 어류가 주식
이며, 오징어 같은 연체동물과 플랑크톤도 잘 먹는다.
전 세계 개체수 1,500여 마리 중 백령도 하늬해변 등
에 300~400여 마리가 집단 서식한다.



저어새



금개구리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대청부채

인천시, 갯대종 보호와 확산 로드맵 추진

우리 인천시는 갯대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 동막역에 ‘인천 갯대종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부지역명을 ‘저어새 생태학습관’으로 정해 음원 방송을 하는 중이다.

홍보 부스는 포토존으로 조성했으며 키오스크도 설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갯대종 보호와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인천대공원의 금개구리

흰발농게

갑각의 길이는 약 0.9cm이며 너비는 약 1.4cm이다.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커서 만화 ‘주먹대장’ 처럼도 보인다. 큰 집게다리가 흰색이어서 흰발농게로 불린다. 갯벌의 모래가 섞인 진흙질 바닥에 수직으로 구멍을 뚫어 살아간다. 영종도 갯벌이 전국 최대 서식지로 200만 개체가 확인되고 있다.

대청부채

납작한 칼처럼 생긴 녹색 잎이 줄기 아래쪽으로 6~8장 마주 보고 달리며 부챗살처럼 벌어진다. 꽃은 7~8월경에 피며 오후에 피었다가 다음 날 아침 스러지는 게 특징이다. 꽃은 분홍빛이 감도는 보라색으로 화려해 보인다. 여러해살이풀로 비옥하고 햇빛이 잘 드는 해안가 지역에서 피어난다. 옹진군 대청도에서 많이 발견돼 인천 ‘대청’이라는 고유 명칭을 쓴다.

인천시 갯대종 보호, 이제 시작이다.

글 노형래 환경 칼럼니스트

인천시 갯대종 보호 정책의 윤곽이 서서히 잡히고 있다. 인천 지역 환경·교육 기관도 시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펼치는 등 갯대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년 8월 17일 오후 3시쯤 옹진군 대청도 미아해변. 10대 학생부터 카메라를 든 70대까지 인천시민 20여 명이 10여 그루의 대청부채를 관찰한다.

“우아~~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오후 3시에 딱 맞춰 꽃망울을 터트리는지 정말 생물시계입니다.” “줄기는 범부채처럼 생겼고, 꽃은 부챗살 모양의 붓꽃 같아요.”

대청부채를 처음 본 시민들은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온 피곤함을 잊은 채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이들은 인천시가 마련한 ‘인천시 갯대종 대청부채 따라 떠나는 대청도 생태 기행’에 참가한 인천시민들이다.

인천시는 2023년 잔점박이물범, 대청부채, 금개구리, 흰발농게, 저어새 등 시 갯대종 보호와 홍보를 위해 이론과 현장 탐방을 결합한 ‘갯대종 생태 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학생과 시민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5대 갯대종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저어새 시민 교육과 홍보는 동막역 인근 남동유수지에 자리한 저어새생태학습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저어새 전문 모니터링은 물론 시민들과 함께하는 저어새 환영, 생일, 환송 잔치 등 저어새 생애주기별 행사를 펼치고 있다.

백령도에서 서식하는 잔점박이물범 보호와 시민 홍보는 백령도 현장에서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이 나서서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논 습지, 갯벌 등 서식지 파괴로 신음하고 있는 흰발농게와 금개구리는 인천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 갯대종 보호에 기업도 발 벗고 나섰다.



대청부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 환경단체와 손잡고 3,900만 원을 들여 저어새생태학습관(저어새), 연희공원자연마당(금개구리), 영종도 송산공원(흰발농게), 대청항(대청부채), 용기포항(점박이물범)에 갯대종 해설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해설 안내판에는 시민들이 갯대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갯대종 정의, 보호를 위한 유의 사항, 홍보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 등이 들어간다.

인천시, 지역사회, 기업 등이 인천시 갯대종 홍보에 여념이 없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점박이물범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고 있으며, 흰발농게 서식지도 끊임없는 갯벌 매립으로 사라지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논 습지가 파괴돼 금개구리도 살 곳을 잃고 있다.

대청부채 서식지는 백령도, 대청도의 절벽 지대 등 서식지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멸종을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시와 지역사회, 기업, 인천시민의 노력으로 5대 갯대종이 지구상에서 멸종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완
초
장한
명
자

씨줄 날줄로 엮어온 아름다운 반세기

글 김진국 본지 편집장 | 사진 안영우 포토 저널리스트



한명자 완초장이 고드랫돌을 만지고 있다.

쓰-윙.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한명자(59) 완초장(인천무형문화재 제17호)이 내민 완초 방식 위에 엉덩이를 걸쳐 본다. 폭신하면서도 상쾌한 촉감. 여느 방식과는 느낌이 다르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완초(왕골)의 습기 자연 조절 성질 덕분이다.

“어때요, 정말 편안하고 좋지요?”

깜짝 놀라는 표정을 꼭 봐야겠다는 듯 얼굴을 쳐다보던 완초장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더니 다시 고드랫돌을 놀린다. 자리틀을 넘나들며 자리를 짜는 고드랫돌이 옥구슬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자리(화문석)는 물론 방식, 광주리에서부터 삼합, 꽃병 단지에 이르기까지 한 완초장이 만드는 완초 제품의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은 다과상 세트 같은 작품도 눈에 띈다. 어려서부터 완초 공예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완초 공예가 변성한 교동도에서 태어난 그의 운명이었다.

“고조부, 증조부 때부터 해오던 가업이 아버지에게 이어졌고 저도 아버지 일을 돕다가 50년 넘게 작업을 해왔고 완초장이라는 명예까지 얻게 됐네요.”

선친 한용진(1913~1998)은 동네에서도 손재주가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는 유난히 귀여워했던 막내딸을 아예 옆에 ‘끼고’ 완초 작업을 했다. 예쁘기도 했고, 손이 모자라기도 했다.

“옛날엔 생필품이 없었잖아요. 바구니며 방식이며 모두 완초로 만들어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울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완초 제품을 많이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중요한 생계 수단이 됐지요.”

한 완초장이 자신의 삶을 완초 공예로 일찌감치 정할 수 있었던 건 서울로 스카우트되면서부터이다. 조막만 한 손으로 야무지게 완초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본 이요환 씨가 그를 서울로 데려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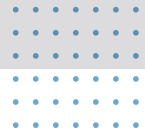
“안암동에 완초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는 공방이 있었어요. 국가무형문화재 제103호 완초장 이상재 선생님이 계시던 곳이었지요. 당시 명동 ‘새로나백화점’ 같은 일류 백화점에 납품할 만큼 유명한 곳이었어요.”

허리병이 생겨 걷다가 주저앉기 일쑤이고, 많은 사람이 한 달을 채 못 걷다고 뛰쳐나갈 정도로 완초 공예는 힘든 일이었다. 그렇지만 고되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며 완초 공예 기능인으로 성장해 나간 그가 2008년 인천무형문화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지난 반세기 동안 그는 질박한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작품을 만들어왔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무늬와 돋보이는 색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 현대적인 세련미가 한명자 완초장만의 장점이다. 강화군농업대학, 김포시엘리트농업대학, 인천여성복지관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한 완초장은 재배부터 작품 제작까지 모든 공정을 스스로 진행한다. 장남 최수림(32, 이수자), 최우림(28, 전수장학생)이 완초 공예를 계승하고 있다.

한명자 완초장이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근화·장세현·이원웅 인천시민(왼쪽부터)이 한자리에서 다시 만났다. 활짝 핀 얼굴에서 행복한 소통과 인천의 아름다운 변화를 본다.

소통 인천

지켜진 약속 확실한 미래, 행복한 내일



2022년 7월 1일,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출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는 ‘균형’, ‘창조’, ‘소통’의 가치를 내걸고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배려로 시민과 소통해 왔습니다. 약속은 지켜졌고, 시민 삶에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이근화·이원웅·장세현 인천시민이 한자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인천의 꿈을 현실로 일군 주인공들입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시와 시민이 한마음으로 같은 꿈을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따뜻한 두 손을 맞잡고, 눈빛을 맞추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한 새 시대, 300만 인천시민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날까지 인천시가 함께합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임학현 포토 디렉터

균형·창조·소통



이근화 시민(62, 서구 오류동)



“인천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시민은 물론 타 시·도, 정부와 협력하며 영킨 실타래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정무 부시장님을 비롯해 시 공무원들이 시민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 이르리라 기대합니다.”

현장에서 공감하고 답을 찾다

‘생활 현장 속으로’

“지금까지 어떤 시장도 대곡마을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14일 보행로가 없어 위험한 서구 대곡로를 찾아 대책 마련을 약속한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게 현장에 있던 한 마을 주민이 말했다. 이 정무부시장은 이날 자동차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길을 마을 주민과 걸으며 어려움을 함께했다. 이 의미 있는 만남은 대곡마을 교통 환경의 단기·중기 개선 방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생활 현장 속으로’ 시민 소통에서 비롯된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근화(62) 씨에게 서구 오류동은 미워도 고운 ‘나의 고향’, ‘우리 동네’다. 태어나 육십 평생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어릴 적 저수지에서 망둥이 잡고 들판에서 뛰놀던 동네에 아스콘 공장 검은 굴뚝이 솟아났다. 수도권 각지에서 쏟아내는 쓰레기가 무섭게 밀려들었다. 이웃들과 ‘비상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네를 지키던 중에 ‘생활 현장 속으로’를 알게 됐다. “인천시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시민은 물론 타 시·도, 정부와 협력하며 영킨 실타래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랑하는 이 땅이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지기를 그는 소망하고, 믿는다. 시와 시민이 함께하기에.



진심과 배려의 ‘현장 소통’

우리 시는 ‘균형’, ‘창조’, ‘소통’의 시정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행복 현장소통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인천시민과 만나 공감하고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시민 중심의 현장 소통 시정 운영을 목표로 한다. 먼저 기존 소통 채널인 ‘온라인 열린 시장실’과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온라인 웹페이지를 개편해 현장 소통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또 생활 속에서 시민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생활 현장 속으로’와 시와 시민, 시의회가 의미 있는 발걸음을 맞추는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현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며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다. 진심과 배려의 소통도시, 바로 인천이다.

Info.

온라인 열린 시장실 ‘인천은 소통이 가득’ (<https://www.incheon.go.kr/cool>)에 시민 의견 제시, 정책 건의 → 3,000명 이상 공감하면 사전 검토 회의 후 공식 답변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온라인 3,000명 이상 공감 의견, 현장에서 직접 소통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 지역 현안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해결 방안 마련

생활 현장 속으로 시민 생활 현장 속 불편 해소 위해 현장 방문, 직접 소통

시 시민소통담당관실 032-440-2418



이원용 시민(60, 부평구 십정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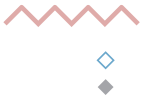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현장에 와서 우리 동네 현안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천시의 소통 행보가 반갑고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먼저인 인천시를 기대합니다.”

시, 시의회, 시민이 한마음으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

“인천은 ‘나의 삶 전부’입니다.” 이원용(60) 씨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인천 사람’이라고 말한다. 스무 살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인천으로 와 생애 가장 긴 시간을 보냈다. 가정을 꾸리고 전성기를 누리고 함께 나이 들어간다. 사랑하는 만큼 지역 현안에도 관심이 크다. 부평구 십정1동 사회 복지협의체 위원장인 그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 채널을 알게 됐다.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현장에 와서 우리 동네 현안을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인천시의 소통 행보가 반갑고 믿음이 갑니다.” 이 아름다운 움직임을 통해 최근 십정체육공원 부지 내에 야외 배드민턴장을 조성하는 결실이 있었다. ‘지역에 어르신 많이 거주하는데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웃을 향한 그의 세심한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방안도 멀리 내다보고 있다. 따뜻한 관심과 진솔한 소통이 불러일으킨, 작지만 큰 변화다.



장세현 시민(45, 중구 영종국제도시)



“그토록 바라던 ‘영종-인천대교의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는 시와 시민이 협력해서 이룬 값진 성과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같다면 인천을 위해 시와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인천시를 응원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 환영합니다.”

시와 시민이 이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의 성과 온라인·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바다와 하늘 사이, 영종국제도시는 그의 ‘집’이다. 장세현(45) 씨는 서울 목동에서 살다 5년 전 중구 영종국제도시로 왔다. 도시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과 합리적인 집값,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당시 두 돌이던 아이가 자라면서 가족의 삶이 단단히 뿌리내렸다. 그 안에서의 삶이 행복했지만, 다른 곳을 갈 때면 통행료를 내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온라인 열린 시장실’에 영종·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무료화를 바라는 시민 청원이 올라왔다. 3,268명 인천시민이 공감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영종국제도시에서 열린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주민과 통행료 지원을 약속했고, 현실이 됐다. 영종·용유·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전 구간과 인천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영종·인천대교의 지역 주민 통행료 무료화는 시가 시민 1만 7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인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가장 공감되는 정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 열린 시장실’은 지난해 하반기 시민 6만여 명이 방문했고, 이 중 시민 1,006명이 각자의 견해를 표명하며 많은 시민의 공감을 이끌었다.

가슴에 뜨겁게 품은 ‘인천’, ‘시민 행복’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인터뷰

“짧은 시간이었지만 원 없이 일했고, 행복했습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지난 1년간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인천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이자 민선 8기 첫 정무부시장으로서, 현장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주하며 쉼 없이 달려온 시간. ‘뭉든, 하면 된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작든 크든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온 힘을 다해 긍정적 변화를 끌어냈다. 가슴에 뜨겁게 품은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이 그를 달리게 한 원동력이다. 그에게 인천은 마음에 묻어두지 않고 뜨겁게 실천하는 사랑이다.

인천시 정무부시장직을 수행한 그동안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취임하는 날, 어두운 터널을 지나 온 세상에 빛이 환히 비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시민 삶에 보탬이 되어 행복했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현안을 풀어내며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었습니다. 늘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집단 민원도 많았는데, 추운 겨울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시민들께 ‘답답한 것이 무엇이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진정성 있게 다가서니, 당장은 해결해 드리지 못해도 웃으며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시의 진심을 시민께서 알아주실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 인천은 어떤 의미인가요?

인천은 제게 ‘꿈의 공간’입니다. 20대 청춘 시절부터 정무부시장의 중책을 맡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꿈을 키우고 펼치며 살아왔습니다. ‘인천의 꿈’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300만 시민께서도 각자의 꿈을 현실로 일구어가며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내일로 함께 나아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와 시민이 같은 꿈을 꾸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옵니다.

굵직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올해 국비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국비 5조 651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49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 공직자들과 함께 땀 흘린 결과입니다. 또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에 유치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 모여 이뤄낸 결과입니다. 세계 세 번째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문자 전문 박물관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도 개관했습니다. 1,000만 인천 시대를 열고, 인천의 무대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소통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모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평소 그 어떤 시민의 목소리라도 무조건 크게 듣고 공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소통의 기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에,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수많은 시민을 만나 현안을 살피고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이 원하시는 바를 바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귀 기울이는 만큼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그래야 ‘시민 행복’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각별한 인연의 시민 세 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천시 민선 8기의 대표적인 현장 소통 채널인 ‘온라인·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생활 현장 속으로’, ‘시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우리 동네 시청’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만난 시민분들입니다. 인천시와 함께 소통하며 인천을 변화시킨 분들이지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관심과 애정이 인천이라는 이 거대한 도시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세계 도시로 성큼 다가서게 합니다.

300만 인천시민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함께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요?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뛰고, 쉼 없이 소통해 왔습니다. 수많은 인천시민을 만나 눈빛을 마주 보며 진솔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대로 삶에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때로 몸이 고되기도 했지만, 기꺼이 뜻을 함께해 주시는 시민을 뵈면 힘이 절로 났습니다. 인천시 민선 8기,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밑그림을 완성했다면, 이제 아름다운 빛으로 칠하며 ‘세계 초일류도시’를 향한 꿈을 빈틈없는 노력으로 완성해 나갈 때입니다. 300만 시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시민이 꿈꾸면 인천시가 반드시 실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 한편에 늘 인천이 있겠지요?

믿고 지지하고 사랑해 주신 인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슴에 품은 ‘오직 인천, 오로지 시민 행복’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힘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인천은 제 가슴 깊이 살아 숨 쉬며 저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하늬바다와 밤하늘의 은하수, 그리고 백령도의 평화

인천 출신 대표 화가 최정숙,
9월 19일~27일 인천문화재단 창고갤러리서 개인전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울트라머린 블루’의 바다, 무수한 음표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 것 같은 밤하늘의 은하수.

어릴 때 보았던 바다와 밤하늘은 비현실적이었다. 자연은 혹시 신이 그린 그림은 아닐까.

60여 년 전 일곱 살 소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백령도의 이미지는 반세기를 흐르며 광활한 우주로 피어났다.

“백령도에서 할머니와 살던 어린 시절, 한여름 밤 집 마당 멍석 위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백령도의 모래알만큼이나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어요.”

서양화가 최정숙(69)이 ‘태고의 지구, 백령도에서 우주를 보다’를 주제로 오는 9월 19일~27일 인천문화재단 창고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하늬바다와 섬, 백령도의 밤하늘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선 100~120호의 대작을 감상할 수 있다. 최정숙의 그림은 어린 시절 선명히 각인된 이미지와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생의 철학, 자연의 총체적 결합체다. 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아찔하면서 우주의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인간은 우주에서 먼지처럼 미미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우주이기도 합니다. 제 그림 속 돌 하나, 별 하나 역시 우주의 일부분이면서 우주 전체이기도 한 것이죠.”

그의 그림은 ‘남북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다. 백령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남북 평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는 남북을 상징하는 청홍색 물감을 많이 사용해 왔다. 청홍색 물감은 뒤섞이고 혼재되며 한반도의 평화, 우주의 질서를 노래한다.

“저희 부모님도 북한 땅 장연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인천의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남북의 갈등이 있었나요. 인천 앞바다가 평화로울 때 우리나라의 평화, 세계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작가는 무수한 점을 찍기도 하고 물감을 뿌리기도 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본인이 생각하는 빛깔과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수십, 수백 번 붓을 놀린다. 그렇게 마침내 하나의 자식, 하나의 우

주가 탄생한다. 작은 점 하나조차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정숙 화가는 작업을 할 때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노력보다 ‘몰입’을 한다. 노력은 힘겹지만 몰입은 즐거운 과정이다.

“매일 새벽 두세 시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어디선가 에너지가 뿔뿔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는 10월에도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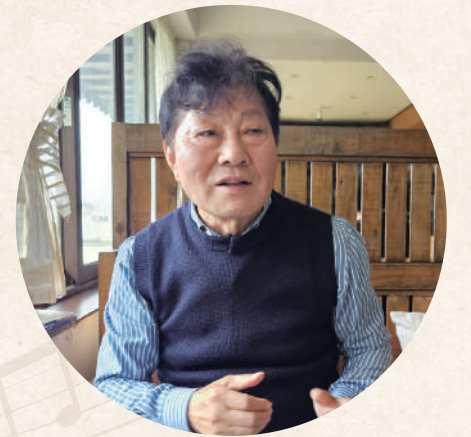


별 내리는 섬, 하늬바다

그때 그 시절, 포크송의 세계에 빠져보아요

인천 출신 국민 가수 백영규,
9월 23일~24일 부평공원에서 포크 음악 축제 개최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젊은이라면 누구나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메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 주머니가 빈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가난한 삶을 달래었다. 쉼시봉과 트윈폴리오 같은 통기타 뮤지션이 등장했고, 그들의 인기는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은 것이었다.

‘포크 음악’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달던 1977년 ‘물레방아’라는 듀엣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인천 출신 백영규와 이춘근이 호흡을 맞춘 ‘남녀 혼성 듀엣’이었다.

“시냇물 흘러 흘러 내 곁을 스치네~ / 물가에 마주 앉아 사랑을 그리며 속삭였네 /우리 꿈~을”. 물레방아의 ‘순이 생각’은 1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면서 당시로서는 엄청난 히트를 친다.

백영규는 이후 ‘잊지는 말아야지’, ‘슬픈 계절에 만나요’ 같은 히트곡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당대 최고 여배우 장미희의 상대역으로 영화를 찍기도 한다.

국민 가수 백영규(71)가 인천에서 열리는 포크 음악 축제의 음악 연출을 맡았다.

그는 ‘인천포크음악페스티벌’을 오는 9월 23일~24일 부평공원에서 개최한다. 내로라하는 우리나라 포크 가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호기이다.



찾아가는 문화 공연 ‘동구포크음악페스티벌’

먼저 9월 23일엔 자전거 탄 풍경, 양하영, 신현희, 육중완 밴드, 한승기, 강허달림이 출연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춘다. 9월 24일엔 채은옥, 이치현, 남궁옥분, 백영규, 로이킴, 사랑과 평화가 나와 포크 음악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앞서 오프닝 공연을 통해 박호명, 윤준, 김도연, 고아라, 미라클 보이즈(팝페라 그룹), 밴드(진수영·정은주·김진호·이정학)가 나와 ‘7080 포크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1970년대 포크 전성 시대의 음악적 배경인 올드팝, 번안

가요, 부평 클럽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음악을 들려준다. 스페셜 게스트 김영목의 플루트 연주가 선선한 가을밤에 울려 퍼진다.

백영규는 “포크는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대중음악의 바이블 같은 음악”이라며 “가을날 단풍처럼 이 가을 포크 음악이 인천 거리 곳곳을 물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영규는 수년 전부터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백다방 유튜브’를 통해 인천 지역에 포크 음악을 확산시켜 왔다. 그는 “인천은 많은 포크 가수를 배출하고 대중음악 발전을 이끈 음악 도시”라며 “인천을 포크 음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곡을 쓰겠다”고 말했다.

APEC·고등법원·해사법원 인천 유치 서명, 100만 명 돌파



2025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해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지지하는 서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서명 접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110만 4,934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우리 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인천 유치를 위한 전방위 홍보와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을 위한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글로벌도시기획과 032-440-1574

무량판 구조 아파트 철저 점검

유정복 인천시장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해 세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우리 시는 골조공사 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시 차원에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인천 지역 아파트 중에서 LH에서 지은 15개 단지는 조사를 완료했고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16개 단지는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주택정책과 032-440-4733

치매 환자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완료

치매 환자에게 쾌적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됐다. 우리 시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고성능 창호와 고효율 냉난방 교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정화를 위한 스마트 에어 샤워 설치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인천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2020년 같은 사업에 선정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 시 건강증진과 032-440-2983

전국 노인 일자리 우수 기관 평가 '대상'

우리 시가 전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2022년 노인 일자리 종합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돼 명실상부 '노인 일자리는 인천'이라는 명성을 잇게 됐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군·구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비롯한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50곳과 협력해 4만 9,67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GS25 시니어드림스토어' 2·3호 개점과 인천시교육청과 공공 협력 모델인 '시니어 학교 방역' 등 다양한 일자리 분야 창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상상플랫폼에 인공지능 교육센터 조성

우리 시는 인천시교육청, 인천관광공사와 '제물포 르네상스 인공지능 교육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원도심의 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제물포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거점으로 상상플랫폼에 인공지능 교육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미추홀구, 서구 등 원도심까지 확산시켜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032-458-7322

우리 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00원

우리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내년 생활임금을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5%를 반영한 것으로, 2023년도 생활임금 1만 1,123원보다 277원 인상했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생활임금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시 노동정책과 032-440-4404

강화·옹진 섬 주민, 9월 동안 택배비 지원

우리 시는 도심보다 평균 5배 비싼 택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한 달간 택배비를 지원한다. 강화군은 미법·서검·주문·아차·불음·말도 등 6개 섬, 옹진군은 육지와 연결된 영흥·선재도 및 측도를 제외한 21개 섬에 거주하는 9월 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택배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 섬해양정책과 032-440-4896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고, 2천원 캐시백 받아가자!

행사기간 2023. 9.11. ~ 10.10.

방법 QR코드로 행사 응모하고, 신한카드 결제

혜택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 제공!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안심

인천시민의 귀갓길 수호천사

안심과 함께 동행하세요

인천광역시

긴급도움 요청하기

나에게 전화걸기

지인에게 알리기

내친구 위치보기

Android
iOS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 잼버리 대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 선사 인천시와 시민, 기업 한마음으로 환대

글 최은정 본지 편집위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만난 잼버리 대원들

우리 시가 인천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마침표를 찍은 전 세계 대원의 마음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폭염과 태풍으로 조기 퇴영해 인천에 여장을 푼 36개국 3,245명의 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돌봤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7일 유정복 인천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전담팀을 꾸리는 등 발 빠른 행보로 대원들을 맞이했다. 유 시장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대원들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발전한 대한민국은 물론 글로벌 도시 인천을 전 세계 잼버리 대원에게 알려 모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숨기쁜 상황에서도 국제행사 경험을 갖춘 우리 시와 모든 직원, 인천의 기업과 대학 등 유관 기관, 그리고 시민들의 협업을 빛냈다.

하나금융, 포스코, SK, 한국은행 등 대기업과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인하공전은 잼버리 대원들에게 자발

적으로 숙소를 제공하는 등 인천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

신한은행은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 실외 활동이 중단된 안타까운 상황에 긴급히 8월 10일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자체 K-팝 콘서트 ‘Jamboree with Incheon’을 기획해 잼버리 대원(1,400여 명 관람)을 환대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다채로운 시간도 이어졌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시티 투어, 야간 관광 투어부터 부평역지하상가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견학 등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미래 산업을 체험하는 산업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 인천 바이오 산업 탐방을 통해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도시로서의 면모를 세계 각지에서 온 잼버리 대원(320여 명 참여)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신의 안정을 세심하게 살폈다.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인천의사협회 파견 의료진은 심야 진료를 도맡았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가 각 숙소를 이동하며 스트레스 측정,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 마음 건강도 챙겼다.

마침내 8월 14일 오후 케냐 대원 11명의 퇴소를 끝으로 인천 방문 잼버리 대원들의 모든 여정이 마무리됐다.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위기에 처했던 국제행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시는 준비된 국제도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시 자치행정과 032-440-2422

IMAGE NEWS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

01

인천발 KTX 적기 개통



2025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KTX 이음
인천 구간 추가

02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
인천 원도심 경쟁력 확보 기틀 마련

03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실시설계, 조사설계 단계
인천 송도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04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다중 교통 연장



GTX-D Y자 & GTX-E(사전 타당성 조사)
서울지하철 5·7호선 검단 및 청라 연장(사전 타당성 조사)
제2경인선 광역철도 및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예비 타당성 조사)

COUNCIL NEWS

청년이음 간담회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청년이음연구회'는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청년이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천 지역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청년이음연구회 김대영 대표의원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학생 인턴십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다.

인하대학교 잼버리 지원 인력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은 지난 8월 10일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탈리아 참가자들이 묵고 있는 인하대학교를 찾아 참가자들의 편의를 돕는 지원 인력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허식 의장은 식당, 의무실, 기숙사 등을 둘러본 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지난 8월 10일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른 상습 피해 지구에 대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빈틈없는 응급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간석지하차도 등 네 곳의 상습 침수 구간과 하천 열두 곳을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일일이 확인하며 주의를 기울였다.

서구 가정2지구 임대주택 건설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구조 결함 문제가 발견된 서구 가정2지구 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철저한 점검과 보강공사를 촉구했다. 2020년 12월 착공한 이 건설 현장은 대학생과 청년, 주거수급자, 고령자, 한부모가정 등 총 510가구가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109개 중 34%인 37개에서 구조 계산 오류가 확인돼 LH가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 기간: 9월 1일(금)~11월 3일(금)
- 참여 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 내용: 시정 및 교육학에 전반 관련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및 건의 사항 등
- 약의 또는 인신공격성 감사 요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감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문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032-440-6143)

<인천앓의회> 구독 안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 '청년이음연구회'는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청년이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천 지역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청년이음연구회 김대영 대표의원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대학생 인턴십은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됐다.

* 웹진

www.icouncil.go.kr/journal

* 우편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의회사무처 032-440-6136



웹진 QR코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감사 시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 감사 기간: 11월 7일(화)~20일(월), 14일간
- 감사 주체: 소관 상임위원회(6개반 50명)
- 피감기관: 117개 기관(예정)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
- 시 소속 행정기관,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과 하급 교육행정기관
-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 출자·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언제 어디서든 시민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SNS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청년 재정 UP 클래스

내용: 청년을 대상으로 금융, 부동산 등 재정 관련 교육을 진행
대상: 18~39세 인천 청년
(주민등록지 및 재·휴학과 재직 장소가 인천이어야 함)
장소: 인천테크노파크
프로그램
9월 7일 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9월 14일 문화예술 영역 계약과 저작권 알아보기
문의: ㉠ 032-725-3061

2

인천 청년 '드림 나래' 서비스 확대

내용
- 구직 청년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성공적 취업 준비를 위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 정장 대여 횟수 연 최대 5회 및 대여업체도 네 곳(부평구,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으로 확대
- 퍼스널컬러 추천 및 면접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인천시 청년일자리포털(young.incheon.kr)에 접수
문의: ㉠ 032-440-4179

3

2023년 DMZ평화랜드
뮤직 페스티벌 in 강화

기간: 9월 16일~17일
장소: 강화군 교동 화개정원 일대
내용
- DMZ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와 평화의 가치 홍보
- 에일리, 오마이걸, 장민호, 나태주, 하모니이즈 등 출연
- 강화도 특산물 판매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
문의: ㉠ 032-440-4004



4

2022년 쉽게 읽고 보는 인천의 살림살이

내용: 인천시의 알기 쉬운 결산서인 '쉽게 읽고 보는 인천의 살림살이'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쉬운 용어와 그래프를 활용해 제작
확인 방법: 인천광역시 정보공개포털
(www.incheon.go.kr/open)의 '재정정보공개' 페이지
문의: ㉠ 032-440-2684

5

대기환경 측정소 32개소로 확대

내용
- 9월부터 계양구 임학사거리에 대기환경 측정소 신규 설치, 기존 31개소에서 32개소로 확대
-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측정, 지역 맞춤형 대기오염 개선 방안 연구에 활용
문의: ㉠ 032-440-5543

6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농부 교실

기간: 9월 4일~11월 17일
대상: 초등학교생
내용
- 전통 농기구, 벼의 일생, 벼 생체 표본 등 관찰
개인 또는 학급별로 신청
문의: ㉠ 032-440-6936 ㉡ www.incheon.go.kr/agro

7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기간: 9월 30일까지
내용
-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 신고해야 함
- 10월부터 미등록 및 정보 변경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문의: ㉠ 032-440-4379 ㉡ www.animal.go.kr

8

제23회 소래포구축제

기간: 9월 15일~17일
장소
- 메인 장소: 소래포구 해오름광장 일원
- 버스킹 장소: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소래습지생태공원
프로그램: 소래놀이터(꽃게·대하 낚시, 어린이 머드 체험, 어린이 보트 낚시), 소래바다 드론 쇼, 소래 힙한 콘서트, 소래인 영상제 등
출연 가수: 9월 15일 에일리, 9월 16일 자이언티, 9월 17일 다비치
문의: ㉠ 032-439-5001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초등학교 5학년 대상 치과 주치의 사업

내용
- 구강 검진, 불소 도포, 치아 홈 메우기 및 치석 제거 등
- 치아 관리 및 구강 위생 교육
신청 방법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덴티아이' 설치 후 문진표 작성
- 집 근처 치과 의료기관 검색 후 사전 예약
문의: ㉠ 032-440-1593

10

서부여성회관 2023년 제4기
사회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 기간: 9월 25일~10월 6일
교육 기간: 10월 10일~12월 23일
수강료: 3만 6,000원, 4만 5,000원, 6만 원(교재비·재료비 별도)
참가 신청: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어학, 문화 등 8개 분야 81개 강좌
문의: ㉠ 032-458-7360 ㉡ www.incheon.go.kr/wiw

11

2023년 인천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내용
- 심리 정서 상담: 고독 및 고립, 관계 갈등 개선
- 사회적 관계망 지원: 자조 모임, 동아리 활동
- 일상 및 감정 돌봄 지원: 교육 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은 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 상담)
대상: 인천시 거주 1인 가구
기간: 12월까지
문의: ㉠ 032-440-2873

12

연수문화원 9월 소식

성인을 위한 전통문화 교실
신청 기간: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선착순 15명)
교육 기간: 10월 17일~11월 28일 매주 화·목요일
내용: 전통 다도와 전통 예절을 배우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문의: ㉠ 032-821-6229

세상과 소통하는 디지털 문해력 키우기

기간: 9월 5일~26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낮 12시
내용: 디지털 문해력 진단 후 이론과 실습 교육
참가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문의: ㉠ 032-821-6229
㉡ www.yeonsu.or.kr

2023년 연수프린지페스티벌 '토리스'

일시: 9월 27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메이플파크
내용: 국악 아카펠라 토리스 공연
문의: ㉠ 032-821-6229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INFO BOX

13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추석 연휴 휴업일 안내

휴업일 : 9월 29일(금) ~ 10월 1일(일)
문의 : 032-440-6450
홈페이지 : www.incheon.go.kr/sm/index

14

미추홀학산문화원 9월 행사

비류왕이 전하는 시와 음악이 있는
‘별빛풍류’

일시: 9월 2일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문학산 정상부 특설 무대
문의: ㉠ 032-866-3993

제10회 학산마당극놀이
‘동행 그리고 공감’

일시: 9월 9일 오후 5시
내용: 시민 창작 마당극 경연과 체험
부스 및 푸드 트럭 운영
장소: 수봉공원 인공폭포 앞 특설 무대
문의: ㉠ 032-866-3993

주말엔 학산네로

일시: 9월 23일 오전 10시~오후 8시
내용: 북(BOOK)자리, 놀(興)자리,
차(茶)자리 운영
장소: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문의: ㉠ 032-866-3993

수봉산 사진·이야기 공모전

기간: 9월 18일까지
주제: 추억이 담긴 수봉산의 사진과 이야기
참여 방법: 구글폼 제출
발표: 9월 22일 미추홀학산문화원 홈페이지
혜택: 우수작 10편 선정 후 상품 증정
문의: ㉠ 032-866-3993



15

송도컨벤시아 9월 전시

인천국제유아교육전

기간: 9월 2일까지
장소: 송도컨벤시아
비용: 5,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02-3453-8887 ㉡ educare-i.co.kr

뷰티 & 헬스케어 쇼

기간: 9월 7일~10일
장소: 송도컨벤시아 1홀
비용: 5,000원(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02-3402-3102 ㉡ www.beautyhealthcareshow.com

제8회 동아전람 4대 박람회

기간: 9월 14일~17일
장소: 송도컨벤시아 1·2홀
비용: 1만 원(사전 등록 시 무료)
문의: ㉠ 02-780-0366 ㉡ www.dong-afairs.co.kr

16

연수구 9월 행사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 특별 강연

일시: 9월 4일 오전 10시~낮 12시
장소: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참가 신청: 연수구청 홈페이지 접수
문의: ㉠ 032-749-6733 ㉡ www.yeonsu.go.kr

썸시봉 윤형주가 들려주는 사랑 노래 이야기

일시: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연수구청 연수아트홀
문의: ㉠ 032-749-7294

‘부모-자녀’ 진로 검사 및 해석

신청 기간: 9월 5일 오후 2시부터(선착순 마감)
참가 신청: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문의: ㉠ 070-4260-8362 ㉡ www.youthcareer.kr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에 꼭 확인 후 참여 부탁드립니다.

17

2023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일시: 10월 4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인천시청 대회의실 및 인천애들 잔디광장
프로그램
- 정신 건강 특별 강연(김경일 교수)
- 정신 건강의 날 기념행사
- 정신 건강 부스 운영(검사·상담·홍보·체험 부스 운영)
사전 접수 이벤트
- 방법: 마음으로 홈페이지(maro.imhc.or.kr) 공지 사항 참고
- 기간: 9월 4일~27일
- 혜택: 1만 원 상당의 선물 증정, 선착순 500명
문의: ㉠ 032-468-9911



마음으로 홈페이지
QR코드

18

인천 지역 도서관 행사 ‘풍성’

미추홀도서관_신중년 미디어콘텐츠 제작

기간: 9월 4일~25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대상: 성인
문의: ㉠ 032-440-6663

미추홀도서관_독서의 달 부모 특강

일시: 9월 9일 오후 2시~4시
대상: 영유아 부모
문의: ㉠ 032-440-6647

미추홀도서관_일상생활 법률 상식 특강

일시: 9월 13일 오후 7시~8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440-6668

미추홀도서관_이권우 작가와의 만남

일시: 9월 16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440-6668

청라호수도서관_두잇 부부의 세계일주 여행기

일시: 9월 13일 오후 7시~9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563-8044

청라호수도서관_에세이 클래스

일시: 9월 18일 오후 7시~9시
대상: 호수글모임 동아리 회원 포함 누구나
문의: ㉠ 032-563-8044

청라국제도서관_책 읽기, 책 놀이

일시: 9월 14일 오전 10시~11시
대상: 30개월 전후 영유아
문의: ㉠ 032-562-1675

청라국제도서관_박준 시인과의 만남

일시: 9월 16일 오전 10시~낮 12시
대상: 성인
문의: ㉠ 032-562-1675

영종하늘도서관_그림책 기차 여행

일시: 9월 3일 오후 3시~5시
대상: 초등학생
문의: ㉠ 032-746-9139

영종하늘도서관_마음꽃 테라피 플라워 공예

일시: 9월 6일·13일 오후 2시~3시 30분
대상: 성인
문의: ㉠ 032-746-9139

미전도서관_양육자를 위한 책 읽기

일시: 9월 17일 오후 3시~5시
대상: 성인
문의: ㉠ 032-590-2833

송도국제기구도서관_인공지능과 인문학

일시: 9월 9일 오후 2시~4시
대상: 누구나
문의: ㉠ 032-851-6650

09 Culture Calendar

이달의 전시

‘건물의 초상, 도시의 신기루’
강철 작가와의 대화
인천아트플랫폼 G1
프로젝트 스페이스1
9월 1일~17일까지
032-760-1000



2023년 도시를 보는 작가전 - ‘치유의 숲’
인천도시역사관 자윖말,
소암홀, 아암홀
10월 22일까지
① 032-850-6031



인천시립박물관
- 동구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공동 특별전
‘화수·화평동’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10월 15일까지
① 032-440-6733



휴과 불의 조화, 토기
- 천년 도시 인천
검단의 토기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시실
11월 30일까지



① 032-440-6797
Re-wild garden:
Forest
인천아트플랫폼
야외정원
12월 31일까지
① 032-760-1000




2023 가족미술콘서트
‘익스트림 매직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9월 9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 석 3만 5,000원
① 070-4045-2302




이달의 공연


01 금
인천시립극단
제89회 정기공연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남동소래아트홀 대공연장
9월 1일 오후 7시 30분,
9월 2·3일 오후 3시
전 석 2만 원
① 1588-2341




02 토
제40회 인하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9월 2일 오후 5시
무료
① 010-2662-7803




2023 라이브 가족
뮤지컬 ‘고양이캣’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9월 2·3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 석 3만 5,000원
① 070-4045-2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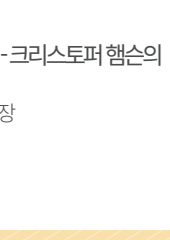
03 일
뮤지컬
‘전천당 vs 흑화당’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월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30분
전 석 7만 원
① 1566-3518




06 수
2023 스테이지 온
스크린 -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6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9




07 목
2023 스테이지 온 스크린 - 크리스토퍼 험슨의
발레 ‘눈의 여왕’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7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9




08 금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15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열전 II’
- 피아니스트 박재홍’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9월 8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1만 원
① 032-420-2781



깊이에의 권유 III
- 양손프로젝트
‘단편소설극장’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9월 8일 오후 7시 30분,
9월 9일 오후 3시
전 석 3만 원
① 032-453-7700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 ‘트롯트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9월 8일 오후 7시
무료
① 032-420-2743



이달의 공연

2023 스테이지 온 스크린
-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8일 오후 8시
무료
① 032-420-2739



09 토
브랜드리 심포니
콘서트 ‘너의 이름은
& 스즈메의 문단속’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월 9일 오후 7시
R석 9만 9,000원, S석
7만 7,000원, A석 5만
5,000원, B석 3만 3,000원
① 070-4038-7179



2023 가족미술콘서트
‘익스트림 매직쇼’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9월 9일 오전 11시,
오후 24시
전 석 3만 5,000원
① 070-4045-2302



[황.금.토.끼] 한우리오페라예술단
‘암모암모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9월 9일 오후 7시
무료
① 032-420-2731



2023 스테이지 온 스크린
- 프랭크 와일드혼의 뮤지컬 ‘지킬 & 하이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9일 오후 8시
무료
① 032-420-2739



이창훈 대금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9월 9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① 032-289-4275



10 일
조수미 콘서트
In Love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9월 10일 오후 5시
R석 10만 원, S석 7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① 032-453-7700



이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9월 10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① 032-289-4275



12 화
인천시립합창단 제9회 인천합창대축제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9월 12·13·14·15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84



14 목
피아노 박사 삼 스페셜 콘서트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월 14일 오후 7시
R석 5만 원, S석 3만 원
① 031-722-6297



인천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14일 오후 1시, 15일 오전 11시
무료
① 032-440-4119



15 금
[황.금.토.끼] 거문고자리
- 해설이 있는 라틴댄스 ‘셀 위 댄스’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9월 15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1



16 토
전국 청소년음악경연대회
‘나스락 페스티벌’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9월 16일 오후 5시 30분
무료
① 032-440-4112



[황.금.토.끼] 아리랑전통연희단
‘설레임이 가득한 아리랑 전통연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1



20 수
마티네 콘서트
‘김정원의 낭만가도
- 시간 여행’ III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9월 20일 오전 11시



전 석 2만 5,000원
① 032-453-7700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월 20·21·22일 오전 10시 30분
전 석 3만 원
① 032-818-5727

2023 커피콘서트 VII
‘성민제×최진배
- 두 대의 베이스로
만드는 세상’
인천동구문화체육센터
9월 20일 오후 2시
전 석 1만 5,000원
① 1588-2341

21 목
지혜를 배우는 시간
‘대담한 대답’ IV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9월 21일 오후 7시 30분
전 석 2만 원
① 032-453-7700

22 금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
‘우리 춤의 향연 3’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43

23 토
[황.금.토.끼] 극단 양상블
- 픽퍼포먼스 ‘씨름사절단’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9월 23일 오후 7시 30분
무료
① 032-420-2731

인천시 청소년 문화대축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9월 23일 오후 2시
무료
① 032-440-2842

24 일
누리 콜렉티브 리사이틀
엘림아트센터 엘림홀
9월 24일 오후 4시 30분
전 석 1만 원
① 032-289-4275



행복 인천, 시민의 색으로 물들다

인천을 그리면 어떤 작품으로 완성될까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 작가가 스케치하고, 인천시민이 고운 빛과 색을 입힙니다.

이달의 드로잉 장수동



박후순 작가



한양대학교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이후 수채화에 입문해 서울미술대상전을 비롯해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이후 유화로 전향하고 수채화의 맑은 색감을 유화에 접목해 다양한 색감의 작품을 그리고 있다. 인천미술대전에서 입선한 바 있으며,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현재도 전시를 준비 중이다. 한국미술협회, 인천미술협회, 부천가톨릭미술인회, 부평미술인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더최고신문> 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박후순 작가의 채색 가이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어느 농가를 지나다가 우연히 사과나무를 발견했다. 사과나무를 보며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 여름내 뜨거운 햇볕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탐스럽게 영근 열매가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오롯이 품고 있는 듯하다. 자연의 다채로운 색감을 화폭에 담아 계절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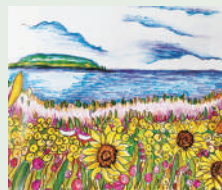
▷ 2023년 8월의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노효성 남동구 성말로



박명자 부평구 화랑로



유리나 남동구 도리미로



정담현 서구 송학로



한창석 부평구 수변로

▷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컬러링 인천' 보내는 방법]


① 우편: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공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② 이메일: goodmorn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9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인천시민의 시선


 **조미희** 서구 크리스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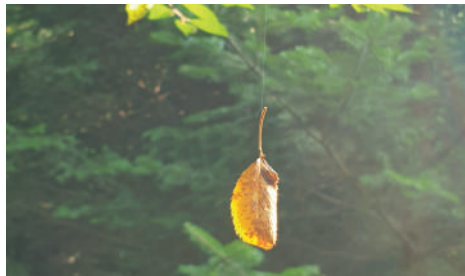


♡ 💬 📌

이번 여름엔 도시가 아닌 조용한 인천의 섬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한아름 만들고 왔습니다. 자월도의 깨끗한 바다와 폭신한 갯벌이 한참 동안 생각날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재미있고 보람찬 여름방학은 없겠죠?

#여름방학섬여행 #인천의섬 #자월도

 **박영준** 미추홀구 매소홀로



♡ 💬 📌

인천대공원 숲길을 걷다 거미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발견했습니다. 강인한 인연의 끈이 나뭇잎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인연은 무엇일까? 나를 돌아봅니다.

#인천대공원숲길 #인연의끈 #거미줄과나뭇잎

당신의 시선이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① 일상의 인상적인 순간을 포착해 사진으로 찍는다.

② 짧은 메시지와 함께 이메일로 보낸다.

보내실 곳: goodmoringic2023@naver.com

기간: 2023년 9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진이 실린 시민께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종민** 남동구 만수서로



♡ 💬 📌

집 근처에 아트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머리산이라는 곳인데요, 푸르른 숲이 언제나 너른 품으로 맞이해 준답니다. 엄마는 매일 이 산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저는 주말마다 방문해 힐링을 하지요.

#남동구만수동 #거머리산 #매일등산 #주말힐링

 **고순영** 연수구 해돋이로



♡ 💬 📌

송도에 자리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전시물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아이들과 어딜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아이들과함께 #재미있고유익한시간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굿모닝인천>



“자, 보세요. 우리 동네 너무 살기 좋지 않나요?”

“<굿모닝인천>에서 소개한 국가지질공원을 올 여름휴가 때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아이들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굿모닝인천>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100여 통의 편지를 보내옵니다. 대부분이 칭찬 일색이라 민망스럽지만 ‘더 잘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인천시민들이 보내는 의견은 연말에 모아 면밀하게 분석한 뒤 잡지 제작에 반영합니다. <굿모닝인천>의 주인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의견은 지면에 적극 게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굿모닝인천> 4쪽 ‘인천미소’와 5쪽 ‘시민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가, 또 56쪽 ‘인천시민의 시선’이 바로 ‘시민 소통 참여’란입니다. 눈치채셨는지만 한 호당 보통 10~12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굿모닝인천>은 앞으로도 인천시민을 편집장, 편집위원으로 모시며 겸손하고 다채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 소통의 광장, 애향심과 자긍심의 보고, 인천 역사의 기록, 인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 가을에도 땀 흘리겠습니다.

- 公明 김진국 -

사라진 하루, 내일을 기다리며

‘오류 코드 발생’. 컴퓨터 화면에 등장한 메시지에,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 하지만 손상된 파일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오후 10시, 인천시청 공보담당관실, <굿모닝인천> 357호 편집 막바지를 향해 달리던 날. 인쇄를 앞둔 <굿모닝인천> 파일이 디자이너 컴퓨터에서 사라졌습니다. 레이아웃을 점검하고, 교정교열하고, 반복 후 인디고 교정 출력, 다시 또 교정교열... 편집진이 매달린 12시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늘 그렇듯, 팍팍한 일정 탓에 주말과 밤낮없이 일한 터라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하루만 더 힘내자’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인천愛들의 밤공기가 상쾌합니다. 잡지 인생 23년, 인천시, <굿모닝인천>과 헛수로 17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미워도, 고을 수밖에요’. 상황은 늘 변화하기 마련이고, 제 맡은 역할이 무엇이든,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굿모닝인천> 제작사와 편집진, 사진 한 장, 영상 한 장면마다 사명감을 다져 넣고, 때로 ‘필요 이상 강요? 받아도’ 그 열정을 헤아려주신 작가님들, 무엇보다 인천시민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편집후기다운 편집후기를 씁니다.

- 두 번째 맞는 9월 호 마감일에, 정경숙 -

인천상륙작전 73주년, 아픔 딛고 미래로

인천항의 정면에 버티고 서서 한반도를 지켜낸 섬, 월미도. 어스름 새벽, 월미도 선착장 곁에 서 있는 그린비치 표지석을 찾아갔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서서 ‘분쟁의 바다, 상륙의 땅, 인천’이 품은 역사를 떠올려봅니다. 73년 전 땅과 바다를 흔들었던 호국의 함성이 아득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은 한국 전쟁의 초반 전세를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교두보를 확보한 아군은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인천은 오늘 300만 인천시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1,000만 인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인천에 붙은 ‘세계의 전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세계가 괄목상대하는 ‘평화와 화합의 도시’로 나아갑니다. 아픔을 딛고 미래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와 함께. 이제 인천이 역사를 깨워 바로 세웁니다.

- 월미도 그린비치 표지석 앞에서, 최은정 -

인천상륙작전 73주년, 국제행사로 날아오르다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



1950년 9월 15일 새벽 6시 월미도(그린비치). 구축함의 함포 사격, 항공기의 폭격과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전격 인천에 상륙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월미도 우선 점령은 필수적이었다. 지상군은 상륙 지점을 크게 레드비치, 블루비치, 그린비치으로 나누었다. 병참 물자 하역 지역인 인천 내항을 옐로비치로, 인천역 가까운 지점을 적색해안으로 각각 명명했는데, 월미도는 공격과 방어 모든 측면에서 가장 먼저 장악해야 하는 중요 지점이었다. 때는 남한 땅의 9할이 북에 점령당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진격,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며 한국전쟁의 승기를 잡는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세를 단번에 뒤바꿔 놓은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한 국제전이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우리 인천시가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 평화 안보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국제행사로 치르고자 하는 이유이다.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인 ‘9·15인천상륙작전’의 가치를 되새기고 브랜딩하기 위해 시는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역사 기념관 건립, 국제 안보 관광 상품화를 위한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시는 이를 위해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범시민 추

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예산 역시 지난해에 비해 10배가 넘는 규모로 책정하고 단발성이 아닌 9월 14일~19일 6일간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행사는 문화, 시민 참여 행사와 국제 포럼 개최, 외교 대사 초청 등으로 짜였다. 이 기간 인천상륙작전 재연, 에어쇼, 국제 포럼, 평화 축제, 음악회, 그림 그리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인천상륙작전을 국가행사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때 지역 내 군부대 이전, 재배치, 어장 확장, 캠프 마켓 개발 활성화, 북한 접경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협조를 건의했다. 각종 국방시설과 관련 규제로 인한 지역 개발 차질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역사적 의미와 안보적 중요성으로 평화의 가치를 새기는 범시민적 행사로 치를 것”이라며 “채외동포청 유치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믿는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 사랑을 쏟아 우리 모두 더 큰 미래로 가자”고 말했다.

9·15인천상륙작전 73돌인 2023년 가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유엔 국기들이 가을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인다.



국기들의 펄럭임, 평화와 공존을 향한 외침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태극기, 유엔기와 함께 한국전쟁 참전국들의 국기가 펄럭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튀르키예 영국 미국은 전투부대를 파견했습니다.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은
의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참전국들의 국기는 말합니다.
세계가 함께 지킨 대한민국을 영원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가라고.

글·사진 김진국 본지 편집장